論語諺解 二

雍也
述而
泰伯
子罕
鄉黨

共四

論론語어諺언解ᄒᆡ卷권之지二이

雍옹也야第뎨六륙

子ᄌᆞㅣ曰왈雍옹也야ᄂᆞᆫ可가使ᄉᆞ南남面면이로다

子ᄌᆞㅣᄀᆞᆯᄋᆞ샤ᄃᆡ雍옹은可가히ᄒᆡ여곰南남面면ᄒᆞ얌즉ᄒᆞ두다

仲듕弓궁이問문子ᄌᆞ桑상伯ᄇᆡᆨ子ᄌᆞᄒᆞᆫ대子ᄌᆞㅣ曰왈可가也야ㅣ簡간이니라

仲듕弓궁이子ᄌᆞ桑상伯ᄇᆡᆨ子ᄌᆞ를묻ᄌᆞ온대子ᄌᆞㅣᄀᆞᆯᄋᆞ샤ᄃᆡ可가홈이簡간이

論론語어諺언解해卷권之지二이

雍옹也야第뎨六륙

子ᄌᆞㅣ曰왈雍옹也야ᄂᆞᆫ可가使ᄉᆞ南남面면이로다

子ᄌᆞㅣ골ᄋᆞ샤ᄃᆡ雍옹은可가히ᄒᆡ여곰南남面면ᄒᆞ얌즉ᄒᆞ두다

仲즁弓궁이問문子ᄌᆞ桑상伯ᄇᆡᆨ子ᄌᆞᄒᆞᆫ대子ᄌᆞㅣ曰왈可가也야ㅣ簡간이니라

仲즁弓궁이子ᄌᆞ桑상伯ᄇᆡᆨ子ᄌᆞ를묻ᄌᆞ온대子ᄌᆞㅣ골ᄋᆞ샤ᄃᆡ可가홈이簡간이

니라

仲중弓궁이 曰왈 居거敬경而이行힝簡간ᄒᆞ야以이臨림其기民민이면不블亦역可가乎호ㅣ잇가 居거簡간而이行힝簡간이면無무乃내大태簡간乎호ㅣ잇가

仲중弓궁이 ᄀᆞᆯ오ᄃᆡ 敬경애居거ᄒᆞ고簡간을行힝ᄒᆞ야 ᄡᅥ그ᄇᆡᆨ셩을臨림ᄒᆞ면ᄯᅩᄒᆞᆷ可가티아니ᄒᆞ니잇가 簡간애居거ᄒᆞ고簡간을行힝ᄒᆞ면아니너무簡간ᄒᆞ니잇가

子ᄌᆞㅣ 曰왈 雍옹之지言언이 然연ᄒᆞ다
子ᄌᆞㅣ ᄀᆞᆯᄋᆞ샤ᄃᆡ 雍옹의 말이 그러ᄒᆞ다
○哀ᄋᆡ公공이 問문 弟뎨子ᄌᆞㅣ 孰슉爲위
好호學학이니잇고 孔공子ᄌᆞㅣ 對ᄃᆡ曰왈 有유
顔안回회者쟈ㅣ 好호學학ᄒᆞ야 不블遷천怒
노ᄒᆞ며 不블貳이過과ᄒᆞ더니 不블幸ᄒᆡᆼ短단命
명死ᄉᆞ矣의라 今금也야則즉亡무ᄒᆞ니 未미
聞문好호學학者쟈也야게이다
哀ᄋᆡ公공이 묻ᄌᆞ오ᄃᆡ 弟뎨子ᄌᆞㅣ 뉘學
학을 됴히 너기ᄂᆞ니잇고 孔공子ᄌᆞㅣ 對

ᄃᆡᄒᆞ야ᄀᆞᆯᄋᆞ샤ᄃᆡ顏안回회라ᄒᆞ리學학을됴히너겨怒노ᄅᆞᆯ遷쳔티아니ᄒᆞ며過과ᄅᆞᆯ貳이티아니ᄒᆞ더니幸ᄒᆡᆼ티몯ᄒᆞ야命명이短단ᄒᆞ야죽은디라이제ᄂᆞᆫ업스니學학을됴히너기ᄂᆞᆫ이ᄅᆞᆯ듣디몯게이다

○子ᄌᆞ華화ㅣ使ᄉᆞ於어齊졔러니冉염子ᄌᆞㅣ爲위其기母모請쳥粟쇽ᄒᆞᆫ대子ᄌᆞㅣ曰왈與여之지釜부ᄒᆞ라請쳥益익ᄒᆞᆫ대曰왈與여之지庾유ᄒᆞ라ᄒᆞ야시ᄂᆞᆯ冉염子ᄌᆞㅣ與여之지粟쇽

五오秉병ᄒᆞ대

子조華화ㅣ齊졔예브리이더니冉염子조ㅣ그어미를爲위ᄒᆞ야粟속을請쳥ᄒᆞᆫ대子조ㅣᄀᆞᆯᄋᆞ샤ᄃᆡ釜부를주라더ᄒᆞᆷ을請쳥ᄒᆞᆫ대ᄀᆞᆯᄋᆞ샤ᄃᆡ庾유를주라ᄒᆞ야시ᄂᆞᆯ冉염子조ㅣ粟속다ᄉᆞᆺ秉병을준대

子조ㅣ曰왈赤젹之지適뎍齊졔也야애乘승肥비馬마ᄒᆞ며衣의輕경裘구ᄒᆞ니吾오ᄂᆞᆫ聞문之지也야ᄒᆞ니君군子조ᄂᆞᆫ周쥬急급이오不블繼계富부ㅣ라ᄒᆞ라

子ᄌᆞㅣ ᄀᆞᆯᄋᆞ샤ᄃᆡ 赤젹의 齊졔예 갈제 肥

비馬마롤 ᄐᆞ며 輕경裘구롤 닙으니 나ᄂᆞᆫ

들으니 君군子ᄌᆞᄂᆞᆫ 急급ᄒᆞᆫ이를 周쥬ᄒᆞ

고 富부ᄒᆞᆫ이를 繼계티 아니ᄒᆞ다 호라

原원思ᄉᆞㅣ 爲위之지宰ᄌᆡ러니 與여之지粟

속九구百ᄇᆡᆨ이어시ᄂᆞᆯ 辭ᄉᆞᄒᆞᆫ대

原원思ᄉᆞㅣ 宰ᄌᆡ 되엿더니 粟속九구百

ᄇᆡᆨ을 주어시ᄂᆞᆯ ᄉᆞ양ᄒᆞᆫ대

子ᄌᆞㅣ 曰왈 毋무ᄒᆞ야 以이與여爾이鄰린里

리鄕향黨당乎호ᄂᆞᆫ뎌

子ᄌᆞㅣ ᄀᆞᆯᄋᆞ샤ᄃᆡ 말아 ᄡᅥ 네의 鄰린이며
里리며 鄕향이며 黨당을 줄띤뎌
○子ᄌᆞㅣ 謂위仲듕弓궁曰왈 犁리牛우之
지子ᄌᆞㅣ 騂셩且챠角각이면 雖슈欲욕勿믈
用용이나 山산川쳔은 其기舍샤諸져아
子ᄌᆞㅣ 仲듕弓궁을 닐어 ᄀᆞᆯᄋᆞ샤ᄃᆡ 犁리
牛우의 子ᄌᆞㅣ 騂셩ᄒᆞ고 ᄯᅩ 角각ᄒᆞ면 비
록 ᄡᅳ디 말고쟈 ᄒᆞ나 山산川쳔은 그 ᄇᆞ리
라
○子ᄌᆞㅣ 曰왈 回회也야ᄂᆞᆫ 其기心심이 三

삼月월不블違위仁인이오其기餘여則즉日
일月월至지焉언而이已이矣의니라
子ᄌᆞㅣ ᄀᆞᆯᄋᆞ샤ᄃᆡ 回회ᄂᆞᆫ 그 ᄆᆞᄋᆞᆷ이 석ᄃᆞᆯ
을 仁인에 어긔웃디 아니ᄒᆞ고 그 나ᄆᆞᆫ이
ᄂᆞᆫ 날이며 ᄃᆞᆯ로 니를 ᄯᆞᄅᆞᆷ이니라
○季계康강子ᄌᆞㅣ 問문仲듕由유ᄂᆞᆫ 可가
使ᄉᆞ從종政졍也야與여잇가 子ᄌᆞㅣ 曰왈 由
유也야ᄂᆞᆫ 果과ᄒᆞ니 於어從종政졍乎호애 何
하有유ㅣ리오 曰왈 賜ᄉᆞ也야ᄂᆞᆫ 可가使ᄉᆞ從
종政졍也야與여잇가 曰왈 賜ᄉᆞ也야ᄂᆞᆫ 達달

ᄒᆞ니於어從죵政졍乎호애何하有유오ㅣ리曰
왈求구也야ᄂᆞᆫ可가使ᄉᆞ從죵政졍也야與
여잇가曰왈求구也야ᄂᆞᆫ藝예ᄒᆞ니於어從죵政
졍乎호애何하有유오ㅣ리
季계康강子ᄌᆞㅣ묻ᄌᆞ오ᄃᆡ仲듕由유ᄂᆞᆫ
可가히히여곰政졍을從죵ᄒᆞ얌즉ᄒᆞ니
잇가子ᄌᆞㅣᄀᆞᆯᄋᆞ샤ᄃᆡ由유ᄂᆞᆫ果과ᄒᆞ니
政졍을從죵홈애므스거시이시리오ᄀᆞᆯ
오ᄃᆡ賜ᄉᆞᄂᆞᆫ可가히히여곰政졍을從죵
ᄒᆞ얌즉ᄒᆞ니잇가ᄀᆞᆯᄋᆞ샤ᄃᆡ賜ᄉᆞᄂᆞᆫ達달

ᄒᆞ니政정을從죵홈애므스거시이시리오ᄀᆞᆯ오ᄃᆡ求구ᄂᆞᆫ可가히ᄒᆡ여곰政정을從죵ᄒᆞ얌즉ᄒᆞ니잇가ᄀᆞᆯᄋᆞ샤ᄃᆡ求구ᄂᆞᆫ藝예ᄒᆞ니政정을從죵홈애므스거시이시리오

○季계氏시ㅣ使ᄉᆞ閔민子ᄌᆞ騫건으로爲위費비宰재ᄒᆞᆫ대閔민子ᄌᆞ騫건이曰왈善션爲위我아辭ᄉᆞ焉언ᄒᆞ라如여有유復부我아者쟈ㅣㄴ댄則즉吾오ㅣ必필在ᄌᆡ汶문上샹矣의로리라

季계氏시ㅣ閔민子ᄌ騫건으로ᄒᆡ여곰費비ㅅ宰지를ᄒᆞ인대閔민子ᄌ騫건이골오ᄃᆡ善션히나를為위ᄒᆞ야辭ᄉᄒᆞ라만일에내게다시ᄒᆞᆷ이이실띤댄끔내반ᄃᆞ시汶문ㅅ上샹애이쇼리라

○伯ᄇᆡᆨ牛우ㅣ有유疾질이어ᄂᆞᆯ子ᄌㅣ問문之지ᄒᆞ실ᄉᆡ自ᄌ牖유로執집其기手슈曰왈亡무之지러니命명矣의夫부ㅣ라斯ᄉ人인也야ㅣ而이有유斯ᄉ疾질也야ᄒᆞᆯ셔斯ᄉ人인也야ㅣ而이有유斯ᄉ疾질也야ᄒᆞᆯ셔

伯빅牛우ㅣ疾질이잇거늘子ᄌᆞㅣ무르
실ᄉᆡ牖유로브터그손을잡아ᄀᆞᆯᄋᆞ샤ᄃᆡ
업스리러니命명이라이사ᄅᆞᆷ이이疾질
을둠셔이사ᄅᆞᆷ이이疾질을둠셔

○子ᄌᆞㅣ曰왈賢현哉ᄌᆡ라回회也야여一
일簞단食ᄉᆞ와一일瓢표飮음으로在ᄌᆡ陋루
巷항을人인不블堪감其기憂우ㅣ어늘回회
也야ㅣ不블改ᄀᆡ其기樂락ᄒᆞ니賢현哉ᄌᆡ라
回회也야여ㅣ

子ᄌᆞㅣᄀᆞᆯᄋᆞ샤ᄃᆡ賢현ᄒᆞ다回회ㅣ여ᄒᆞᆫ

簞단앳食ᄉᆞ와ᄒᆞᆫ瓢표앳飮음으로陋루
巷항애이심을사ᄅᆞᆷ이그시름을이긔디
몯ᄒᆞ거늘回회ㅣ그樂락을改ᄀᆡ티아니
ᄒᆞ니賢현ᄒᆞ다回회ㅣ여
○冉염求구ㅣ曰왈非비不블說열子ᄌᆞ之
지道도ㅣ언마ᄂᆞᆫ力력不블足죡也야ㅣ로이다子ᄌᆞ
ㅣ曰왈力력不블足죡者쟈ᄂᆞᆫ中즁道도而
이廢폐ᄒᆞᄂᆞ니今금女여ᄂᆞᆫ畫획이로다
冉염求구ㅣᄀᆞᆯ오ᄃᆡ子ᄌᆞ의道도를說열
티아니홈이아니언마ᄂᆞᆫ힘이足죡디몯

호이다子조ㅣ골ᄋᆞ샤ᄃᆡ힘이足족디몯
ᄒᆞᆫ者쟈ᄂᆞᆫ道도애中즁ᄒᆞ야廢폐ᄒᆞᄂᆞ니
이제너ᄂᆞᆫ畫획홈이로다
○子조ㅣ謂위子조夏하曰왈女여爲위君
군子조儒유ㅣ오無무爲위小쇼人인儒유ㅣ라ᄒᆞ
子조ㅣ子조夏하ᄃᆞ려닐어ᄀᆞᆯᄋᆞ샤ᄃᆡ네
君군子조人인儒유ㅣ되고小쇼人인人인儒
유ㅣ되디말라
○子조游유ㅣ爲위武무城셩宰ᄌᆡ러니子조
ㅣ曰왈女여ㅣ得득人인焉언爾이乎호아

曰왈有유澹담臺ᄃᆡ滅멸明명者쟈ᄒᆞ니行ᄒᆡᆼ
不블由유徑경ᄒᆞ며非비公공事ᄉᆞㅣ어든未미
嘗샹至지於어偃언之지室실也야ㅣᄒᆞᄂᆞ니이다
子ᄌᆞ游유ㅣ武무城셩人인宰재되엿더니
子ᄌᆞㅣ ᄀᆞᄅᆞ샤ᄃᆡ 네 사ᄅᆞᆷ을 어던ᄂᆞ다 ᄀᆞᆯ
오ᄃᆡ 澹담臺ᄃᆡ滅멸明명이라 ᄒᆞᆯ 이 이시
니 行ᄒᆡᆼᄒᆞᆷ애 徑징을 말미암디 아니ᄒᆞ며
公공事ᄉᆞㅣ 아니어든 일ᄶᅩᆨ 偃언의 室실
에 니르디 아니ᄒᆞᄂᆞ니이다
○子ᄌᆞㅣ 曰왈 孟ᄆᆡᆼ之지反반ᄋᆞᆫ 不블伐벌

이로다 奔분而이殿뎐ᄒᆞ야將쟝入입門문ᄒᆞᆯ식策책其기馬마曰왈非비敢감後후也야ㅣ라馬마不블進진也야ㅣ라ᄒᆞ니라

子ᄌᆞㅣ ᄀᆞᆯᄋᆞ샤ᄃᆡ 孟ᄆᆡᆼ之지反반오 伐벌티 아니ᄒᆞ놋다 奔분홈애 殿뎐ᄒᆞ야 쟝ᄎᆞᆺ 門문의 들ᄉᆡ 그 ᄆᆞᆯ을 策책ᄒᆞ야 ᄀᆞᆯ오ᄃᆡ 敢감히 後후ᄒᆞᆫ 줄이 아니라 ᄆᆞᆯ이 나아가디 아니홈이라 ᄒᆞ니라

○子ᄌᆞㅣ曰왈不블有유祝츅鮀타之지佞녕이며而이有유宋송朝죠之지美미면難난

乎호免면於어今금之지世세矣의니라

子ᄌᆞㅣ골ᄋᆞ샤ᄃᆡ祝츅鮀타의佞녕을두며宋송朝됴의美미를두디아니면이젠世세예免면홈이어려우니라

○子ᄌᆞㅣ曰왈誰슈能능出츌不블由유戶호ㅣ리오마ᄂᆞᆫ何하莫막由유斯ᄉᆞ道도也야오

子ᄌᆞㅣ골ᄋᆞ샤ᄃᆡ뉘能능히出츌홈애戶호를由유티아니리오마ᄂᆞᆫ엇디이道도를由유티아니ᄒᆞᄂᆞ고

○子ᄌᆞㅣ曰왈質질勝승文문則즉野야ㅣ오

文문勝승質질則즉史ᄉᆞㅣ니文문質질이彬
빈彬빈然연後후에君군子ᄌᆞㅣ니라
子ᄌᆞㅣ ᄀᆞᆯᄋᆞ샤ᄃᆡ質질이文문을勝승ᄒᆞ
면野야ㅣ오文문이質질을勝승ᄒᆞ면史
ᄉᆞㅣ니文문과質질이彬빈彬빈ᄒᆞᆫ後후
에君군子ᄌᆞㅣ니라
○子ᄌᆞㅣ曰왈人인之지生생也야ㅣ直직
ᄒᆞ니罔망之지生생也야ᄂᆞᆫ幸힝而이免면이
니라

子ᄌᆞㅣ ᄀᆞᆯᄋᆞ샤ᄃᆡ사ᄅᆞᆷ의生생이直직ᄒᆞᆫ

거시니罔망의生ᄉᆡᆼ홈은ᄒᆡᆼ혀免면ᄒᆞ얀

ᄂᆞ니라

○子ᄌᆞㅣ曰왈知지之지者쟈ㅣ不블如여

好호之지者쟈오ㅣ好호之지者쟈ㅣ不블如

여樂락之지者쟈ㅣ니라

子ᄌᆞㅣ골ᄋᆞ샤ᄃᆡ아ᄂᆞᆫ이됴히너기ᄂᆞᆫ이

만곧디몯ᄒᆞ고됴히너기ᄂᆞᆫ이즐겨ᄒᆞᄂᆞᆫ

이만곧디몯ᄒᆞ니라

○子ᄌᆞㅣ曰왈中즁人인以이上샹은可가

以이語어上샹也야ㅣ어니와中즁人인以이下

하ᄂᆞᆫ 不블可가以이語어上샹也야ㅣ니라

子ᄌᆞㅣ ᄀᆞᆯᄋᆞ샤ᄃᆡ 中듕人인으로ᄡᅥ 우흔 可가히 ᄡᅥ 우흘 니ᄅᆞ려니와 中듕人인으로ᄡᅥ 아래ᄂᆞᆫ 可가히 ᄡᅥ 우흘 니ᄅᆞ디 몯ᄒᆞᆯ 꺼시니라

○樊번遲지ㅣ問문知지ᄒᆞᆫ대 子ᄌᆞㅣ曰왈務무民민之지義의오 敬경鬼귀神신而이遠원之지면 可가謂위知지矣의니라 問문仁인ᄒᆞᆫ대 曰왈仁인者쟈ㅣ先션難난而이後후獲획이면 可가謂위仁인矣의니라

樊번遲지ㅣ知지를묻ᄌᆞ온대子ᄌᆞㅣ골ᄋᆞ샤ᄃᆡ民민의義의를힘ᄡᅳ고鬼귀神신을공경ᄒᆞ고멀리ᄒᆞ면可가히知지라닐ᄋᆞᆯ띠니라仁인을묻ᄌᆞ온대골ᄋᆞ샤ᄃᆡ仁인ᄒᆞᆫ者쟈ㅣ難난을몬져ᄒᆞ고獲획홈을後후ᄒᆞ면可가히仁인이라니를띠니라

○子ᄌᆞㅣ曰왈知지者쟈ᄂᆞᆫ樂요水슈ᄒᆞ고仁인者쟈ᄂᆞᆫ樂요山산ᄒᆞ니知지者쟈ᄂᆞᆫ動동ᄒᆞ고仁인者쟈ᄂᆞᆫ靜정ᄒᆞ며知지者쟈ᄂᆞᆫ樂락ᄒᆞ고仁인者쟈ᄂᆞᆫ壽슈ㅣ니라

子ᄌᆞㅣᄀᆞᆯᄋᆞ샤ᄃᆡ知지ᄒᆞᆫ者쟈ᄂᆞᆫ水슈를
됴히너기고仁인ᄒᆞᆫ者쟈ᄂᆞᆫ山산을됴히
너기ᄂᆞ니知지ᄒᆞᆫ者쟈ᄂᆞᆫ動동ᄒᆞ고仁인
ᄒᆞᆫ者쟈ᄂᆞᆫ靜정ᄒᆞ며知지ᄒᆞᆫ者쟈ᄂᆞᆫ樂락
ᄒᆞ고仁인ᄒᆞᆫ者쟈ᄂᆞᆫ壽슈ᄒᆞᄂᆞ니라

○子ᄌᆞㅣ曰왈齊제一일變변이면至지於어
魯로ᄒᆞ고魯로一일變변이면至지於어道도ㅣ니
라

子ᄌᆞㅣᄀᆞᆯᄋᆞ샤ᄃᆡ齊제ㅣᄒᆞᆫ번變변ᄒᆞ면
魯로애니르고魯로ㅣᄒᆞᆫ번變변ᄒᆞ면道

도애니를떼니라

○子ᄌᆞㅣ曰왈觚고ㅣ不블觚고면ㅣ觚고哉지觚고哉지아

○子ᄌᆞㅣᄀᆞᆯᄋᆞ샤ᄃᆡ觚고ㅣ觚고티아니면觚고ㅣ라觚고ㅣ라

○宰지我아ㅣ問문曰왈仁인者쟈ᄂᆞᆫ雖슈告고之지曰왈井정有유仁인焉어도이라其기從종之지也야이ㅣ다로소子ᄌᆞㅣ曰왈何하為위其기然연也야오ㅣ리君군子ᄌᆞᄂᆞᆫ可가逝셔也야ㅣ언뎡不블可가陷함也야ㅣ며可가

欺긔也야ㅣ언뎡不블可가罔망也야ㅣ니라

宰지我아ㅣ묻ᄌᆞ와ᄀᆞᆯ오ᄃᆡ仁인者쟈ᄂᆞᆫ
비록告고ᄒᆞ야ᄀᆞᆯ오ᄃᆡ井정에사ᄅᆞᆷ이잇
다ᄒᆞ야도그從죵ᄒᆞ리로소이다子ᄌᆞㅣ
ᄀᆞᆯᄋᆞ샤ᄃᆡ엇디그그러ᄒᆞ리오君군子ᄌᆞ
ᄂᆞᆫ可가히가게ᄒᆞᆯᄯᅵ언뎡可가히ᄲᆞ디게
몯ᄒᆞ며可가히欺긔ᄒᆞᆯᄯᅵ언뎡可가히罔
망티몯ᄒᆞᆯ꺼시니라

○子ᄌᆞㅣ曰왈君군子ᄌᆞㅣ博박學학於어
文문이오約약之지以이禮례면亦역可가以

이弗블畔반矣의夫부뎌

子ᄌᆞㅣ ᄀᆞᆯᄋᆞ샤ᄃᆡ君군子ᄌᆞㅣ文문에너

비學학ᄒᆞ고約약호ᄃᆡ禮례로ᄡᅥᄒᆞ면ᄯᅩ

可가히ᄡᅥ畔반티아니ᄒᆞ리뎌

○子ᄌᆞㅣ見견南남子ᄌᆞᄒᆞ신대子ᄌᆞ路로ㅣ

不블說열이어ᄂᆞᆯ夫부子ᄌᆞㅣ矢시之지曰왈

予여所소否부者쟈ㅣᆫ댄天텬厭염之지天텬

厭염之지시리라

子ᄌᆞㅣ南남子ᄌᆞᄅᆞᆯ보신대子ᄌᆞ路로ㅣ

깃거티아니ᄒᆞ거ᄂᆞᆯ夫부子ᄌᆞㅣ矢시ᄒᆞ

야ᄀᆞᆯᄋᆞ샤ᄃᆡ내否부ᄒᆞᆫ밴댄하ᄂᆞᆯ히厭염
ᄒᆞ시리라하ᄂᆞᆯ히厭염ᄒᆞ시리라

○子ᄌᆞᅵ曰왈中중庸용之지爲위德덕也
야ᅵ其기至지矣의乎호뎐民민鮮션이久
구矣의라니

子ᄌᆞᅵᄀᆞᆯᄋᆞ샤ᄃᆡ中중庸용의德덕이로
옴이그至지ᄒᆞᆫ뎌民민이鮮션ᄒᆞᆫ디오라
니라

○子ᄌᆞ貢공이曰왈如여有유博박施시於
어民민而이能능濟제衆중ᄒᆞ면何하如여ᄒᆞ니

잇고 可가謂위仁인乎호ㅣ잇가 子ᄌᆞㅣ曰왈何하事ᄉᆞ於어仁인이리오 必필也야聖셩乎혼뎌 堯요舜슌도 其기猶유病병諸져ㅣ시니라

子ᄌᆞ貢공이 ᄀᆞᆯ오ᄃᆡ 만일에 民민의게 施시홈을 너비ᄒᆞ고 能능히 濟졔홈이 衆즁혼ᄃᆡ 엇더ᄒᆞ니잇고 可가히 仁인이라 니ᄅᆞ리잇가 子ᄌᆞㅣ ᄀᆞᆯᄋᆞ샤ᄃᆡ 엇디 仁인에 事ᄉᆞᄒᆞ리오 반ᄃᆞ시 聖셩인뎌 堯요舜슌도 그오히려 病병도이 너기시니라

夫부仁인者쟈ᄂᆞᆫ 己긔欲욕立립而이立립

人인ᄒᆞ며己긔欲욕達달而이達달人인이니라
仁인ᄒᆞᆫ者쟈ᄂᆞᆫ몸이立립고져홈애사ᄅᆞᆷ
을立립게ᄒᆞ며몸이達달코져홈애사ᄅᆞᆷ
을達달게ᄒᆞᄂᆞ니라
能능近근取취譬비면可가謂위仁인之지
方방也야已이니라
能능히갓가온ᄃᆡ取취ᄒᆞ야譬비ᄒᆞ면可
가히仁인의方방이라니ᄅᆞᆯ띠니라
述슐而이第뎨七칠
子ᄌᆞㅣ曰왈述슐而이不블作작ᄒᆞ며信신而

이 好호古고를 竊절比비於어我아老로彭핑ᄒᆞ노라

子ᄌᆞㅣ ᄀᆞᆯᄋᆞ샤ᄃᆡ 述슐ᄒᆞ고 作작디 아니ᄒᆞ며 信신ᄒᆞ고 녜를 됴히 너김을 그우이 우리 老로彭핑의게 比비ᄒᆞ노라

○子ᄌᆞㅣ 曰왈 默묵而이識지之지ᄒᆞ며 學학而이不블厭염ᄒᆞ며 誨회人인不블倦권이 何하有유於어我아哉재오

子ᄌᆞㅣ ᄀᆞᆯᄋᆞ샤ᄃᆡ 默묵ᄒᆞ야 識지ᄒᆞ며 學학ᄒᆞ야 厭염티 아니ᄒᆞ며 사ᄅᆞᆷᄀᆞᄅᆞ침을

게을이아니홈이므서시내게인ᄂᆞ뇨

○子ᄌᆞㅣ曰왈德덕之지不블脩슈와學학之지不블講강과聞문義의不블能능徙ᄉᆞᄒᆞ며不블善션不블能능改ᄀᆡㅣ是시吾오憂우也야ㅣ니라

子ᄌᆞㅣᄀᆞᄅᆞ샤ᄃᆡ德덕의脩슈티몯홈과學학의講강티몯홈과義의를듣고能능히徙ᄉᆞ티몯ᄒᆞ며善션티몯ᄒᆞᆫ거슬能능히고티디몯홈이이내의시름이니라

○子ᄌᆞ之지燕연居거애申신申신如여也

야ᄒᆞ시며 夭요夭요如여也야ㅣ러시다

子ᄌᆞ의 燕연居거ᄒᆞ심애 申신申신ᄐᆞᆺᄒᆞ시며 夭요夭요ᄐᆞᆺᄒᆞ더시다

○子ᄌᆞㅣ 曰왈 甚심矣의라 吾오衰쇠也야ㅣ여 久구矣의라 吾오不블復부夢몽見견周쥬公공이로다

子ᄌᆞㅣ ᄀᆞᆯᄋᆞ샤ᄃᆡ 甚심ᄒᆞ다 내 衰쇠홈이여 오라다 내 다시 ᄭᅮᆷ에 周쥬公공을 보디 몯ᄒᆞ리로다

○子ᄌᆞㅣ 曰왈 志지於어道도ᄒᆞ며

子ᄌᆞㅣ ᄀᆞᆯᄋᆞ샤ᄃᆡ 道도애 志지ᄒᆞ며
據거於어德덕ᄒᆞ며
德덕에 據거ᄒᆞ며
依의於어仁인ᄒᆞ며
仁인에 依의ᄒᆞ며
游유於어藝예니라
藝예에 游유홀ᄯᅵ니라

○子ᄌᆞㅣ 曰왈 自ᄌᆞ行ᄒᆡᆼ束속脩슈以이上샹은 吾오未미嘗샹無무誨회焉언이로라

子ᄌᆞㅣ ᄀᆞᆯᄋᆞ샤ᄃᆡ 束속脩슈行ᄒᆡᆼᄒᆞᆫ 이로

부터ᄡᅥ우흔내일쯕ᄀᆞᄅᆞ침이업디아니

호라

○子ᄌᆞㅣ曰왈不블憤분이어든不블啓계ᄒᆞ며

不블悱비어든不블發발호ᄃᆡ擧거一일隅우애

不블以이三삼隅우反반이어든則즉不블復

부也야ㅣ라니

子ᄌᆞㅣ골ᄋᆞ샤ᄃᆡ憤분티아니커든啓계

티아니ᄒᆞ며悱비티아니커든發발티아

니호ᄃᆡ一일隅우를擧거홈애三삼隅우

로ᄡᅥ反반티몯ᄒᆞ거든곧다시아니ᄒᆞᄂᆞ

니라

○子ᄌᆞ ㅣ 食식於어有유喪상者쟈之지側측애 未미嘗샹飽포也야시다러

子ᄌᆞ ㅣ 喪상인ᄂᆞᆫ者쟈의겨틔셔食식ᄒᆞ심애일쯕飽포티아니터시다

子ᄌᆞ ㅣ 於어是시日일에哭곡則즉不블歌가시다러

子ᄌᆞ ㅣ 이날애哭곡ᄒᆞ시면歌가티아니ᄒᆞ더시다

○子ᄌᆞ ㅣ 謂위顏안淵연曰왈用용之지則

즉行힝ᄒᆞ고舍샤之지則즉藏장을惟유我아與여爾이ㅣ有유是시夫분뎌

子ᄌᆞㅣ顔안淵연ᄃᆞ려닐러ᄀᆞᆯᄋᆞ샤ᄃᆡ用용ᄒᆞ면行힝ᄒᆞ고舍샤ᄒᆞ면藏장홈을오직나와다ᄆᆞᆺ네이ᄅᆞᆯ둔ᄂᆞᆫ뎌

子ᄌᆞ路로ㅣ曰왈子ᄌᆞㅣ行힝三삼軍군則즉誰슈與여ㅣ시리잇고

子ᄌᆞ路로ㅣᄀᆞᆯᄋᆞᄃᆡ子ᄌᆞㅣ三삼軍군을行힝ᄒᆞ시면누를더브러ᄒᆞ시리잇고

子ᄌᆞㅣ曰왈暴포虎호馮빙河하ᄒᆞ야死ᄉᆞ而

이無무悔회者쟈를吾오不블與여也야ㅣ니
必필也야臨림事ᄉᆞ而이懼구ᄒᆞ며好호謀모
而이成셩者쟈也야ㅣ니라
子ᄌᆞㅣ골ᄋᆞ샤ᄃᆡ虎호를暴포ᄒᆞ며河하
를馮빙ᄒᆞ야죽어도뉘웃츰이업ᄉᆞᆫ者쟈
를내더브러아니호리니반ᄃᆞ시일에臨
림ᄒᆞ야저허ᄒᆞ며謀모홈을됴히너기고
成셩ᄒᆞᄂᆞᆫ者쟈ㅣ니라
○子ᄌᆞㅣ曰왈富부而이可가求구也야ㅣᆫ댄
雖슈執집鞭편之지士ᄉᆞㅣ라도吾오亦역爲

위之지어니와如여不블可가求구면ᄂᆞᆫ從종吾
오所소好호호리라
子ᄌᆞㅣᄀᆞᆯᄋᆞ샤ᄃᆡ富부를可가히求구ᄒᆞᆯ
ᄭᅧ신댄비록채를잡ᄂᆞᆫ士ᄉᆞㅣ라도내ᄯᅩ
흔ᄒᆞ려니와만일에可가히求구티몯ᄒᆞᆯ
ᄭᅧ신댄내의됴히너기ᄂᆞᆫ바를조ᄎᆞ리라

○子ᄌᆞ之지所소愼신은齊저戰젼疾질이러
시다

子ᄌᆞ의삼가시ᄂᆞᆫ바ᄂᆞᆫ齊저와戰젼과疾
질이러시다

○子ᄌᆞㅣ在ᄌᆡ齊졔聞문韶쇼ᄒᆞ시고三삼月
월을不블知지肉육味미ᄒᆞ샤曰왈不블圖도
爲위樂악之지至지於어斯ᄉᆞ也야호라
子ᄌᆞㅣ齊졔예겨샤韶쇼를드르시고學
학ᄒᆞ신석ᄃᆞᆯ을肉육味미를아디몯ᄒᆞ샤
ᄀᆞᆯᄋᆞ샤ᄃᆡ樂악을홈이이예니를줄을圖
도티아니호라
○冉염有유ㅣ曰왈夫부子ᄌᆞㅣ爲위衛위
君군乎호아子ᄌᆞ貢공이曰왈諾락다吾오
將장問문之지호리라

冉염有유ㅣ 골오ᄃᆡ 夫부子ᄌᆞㅣ 衛위君군을 爲위ᄒᆞ시랴 子ᄌᆞ貢공이 골오ᄃᆡ 諾락다 내 장ᄎᆞᆺ 묻ᄌᆞ오리라

入입ᄒᆞ야 曰왈 伯ᄇᆡᆨ夷이 叔슉齊제ᄂᆞᆫ 何하人인也야ㅣ잇고 曰왈 古고之지賢현人인也야ㅣ니라 曰왈 怨원乎호ㅣ잇가 曰왈 求구仁인而이得득仁인이어니 又우何하怨원이리오 出츌曰왈 夫부子ᄌᆞㅣ 不블爲위也야ㅣ시리라

들어가 골오ᄃᆡ 伯ᄇᆡᆨ夷이와 叔슉齊제ᄂᆞᆫ 엇던 사ᄅᆞᆷ이니잇고 골ᄋᆞ샤ᄃᆡ 녯 賢현人

인이니라 골오ᄃᆡ 怨원ᄒᆞ더니잇가 골ᄋᆞ샤ᄃᆡ 仁인을 求구ᄒᆞ야 仁인을 得득ᄒᆞ야니 ᄯᅩ 엇디 怨원ᄒᆞ리오 나와 골오ᄃᆡ 夫부子ᄌᆞㅣ 爲위티 아니ᄒᆞ시리러라

○子ᄌᆞㅣ 曰왈 飯반疏소食ᄉᆞ飮음水슈ᄒᆞ고 曲곡肱굉而이枕침之지라도 樂락亦역在ᄌᆡ其기中듕矣의니 不블義의而이富부且챠貴귀ᄂᆞᆫ 於어我아애 如여浮부雲운이니라

子ᄌᆞㅣ 골ᄋᆞ샤ᄃᆡ 疏소食ᄉᆞ를 飯반ᄒᆞ며 水슈를 飮음ᄒᆞ고 肱굉을 曲곡ᄒᆞ야 枕침

ᄒᆞ야도樂락이ᄯᅩᄒᆞᆫ그가온대인ᄂᆞ니義
의아니오富부코ᄯᅩ貴귀홈은내게浮부
雲운ᄀᆞᆮᄐᆞ니라
○子ᄌᆞㅣ曰왈加가我아數수年년ᄒᆞ야五十
졸以이學학易역이면可가以이無무大대過
과矣의리라
子ᄌᆞㅣᄀᆞᆯᄋᆞ샤ᄃᆡ나ᄅᆞᆯ두어ᄒᆡᄅᆞᆯ假가ᄒᆞ
야ᄆᆞᄎᆞᆷ내ᄡᅥ易역을學학ᄒᆞ면可가히ᄡᅥ
큰허믈이업스리라
○子ᄌᆞㅣ所소雅아言언은詩시書서執집禮

례ㅣ皆ᄀᆡ雅아言언也야ㅣ러시다

子ᄌᆞ의샹해言언ᄒᆞ시ᄂᆞᆫ바ᄂᆞᆫ詩시와書

셔와자ᄇᆞᆫᄂᆞᆫ禮례ㅣ다샹해言언이러시

다

○葉셥公공이問문孔공子ᄌᆞ於어子ᄌᆞ路

로ㅣ어ᄂᆞᆯ子ᄌᆞ路로ㅣ不블對ᄃᆡᄒᆞᆫ대

葉셥公공이孔공子ᄌᆞ를子ᄌᆞ路로의게

무러ᄂᆞᆯ子ᄌᆞ路로ㅣ對ᄃᆡ티아니ᄒᆞᆫ대

子ᄌᆞㅣ曰왈女여ㅣ奚히不블曰왈其기爲

위人인也야ㅣ發발憤분忘망食식ᄒᆞ며樂락

以이忘망憂우ᄒᆞ야不블知지老로之지將장至지云운爾이오

子ᄌᆞㅣ ᄀᆞᆯᄋᆞ샤ᄃᆡ 네 엇디 ᄀᆞᆯ오ᄃᆡ 그 사ᄅᆞᆷ이로옴이 憤분을 發발ᄒᆞ야 食식을 니ᄌᆞ며 樂락ᄒᆞ야 ᄡᅥ 시름을 니저 늘금의 장ᄎᆞᆺ 니르롬을 아디 몯ᄒᆞ다 아니ᄒᆞ뇨

○子ᄌᆞㅣ曰왈我아非비生싱而이知지之지者쟈ㅣ라好호古고敏민以이求구之지者쟈也야ㅣ로라

子ᄌᆞㅣ ᄀᆞᆯᄋᆞ샤ᄃᆡ 내 生싱ᄒᆞ야 아ᄂᆞᆫ 者쟈

ㅣ아니라녜를됴히너겨敏민히뻐求구ᄒᆞᄂᆞᆫ者쟈ㅣ로라

○子ᄌᆞㅣ不블語어怪괴力력亂란神신이러시다

子ᄌᆞㅣ怪괴와力력과亂란과神신을니ᄅᆞ디아니ᄒᆞ더시다

○子ᄌᆞㅣ曰왈三삼人인行ᄒᆡᆼ애必필有유我아師ᄉᆞ焉언이니擇ᄐᆡᆨ其기善션者쟈而이從종之지오其기不블善션者쟈而이改ᄀᆡ之지니라

子ᄌᆞㅣ ᄀᆞᆯᄋᆞ샤ᄃᆡ 세 사ᄅᆞᆷ이 行힝홈애 반ᄃᆞ시 내 스승이 인ᄂᆞ니 그 어딘 者쟈를 ᄀᆞᆯᄒᆡ여 좃고 그 어디디 아닌 者쟈를 고틸 띠니라

○子ᄌᆞㅣ 曰왈 天텬生싱德덕於어予여시니 桓환魋퇴ㅣ 其기如여予여何하ㅣ리오

子ᄌᆞㅣ ᄀᆞᆯᄋᆞ샤ᄃᆡ 하ᄂᆞᆯ히 德덕을 내게 生싱ᄒᆞ시니 桓환魋퇴ㅣ 그 내게 엇디리오

○子ᄌᆞㅣ 曰왈 二이三삼子ᄌᆞᄂᆞᆫ 以이我아爲위隱은乎호아 吾오無무隱은乎호爾이

로라 吾오無무行힝而이不블與여二이三삼子ᄌᆞ者쟈ㅣ是시丘구也야ㅣ니라

子ᄌᆞㅣ ᄀᆞᆯᄋᆞ샤ᄃᆡ 二이三삼子ᄌᆞᄂᆞᆫ 날로ᄡᅥ 隱은ᄒᆞ다ᄒᆞᄂᆞ냐 내 네게 隱은홈이 업소라 내 行힝ᄒᆞ고 二이三삼子ᄌᆞ에 與여티 아니홈이 업ᄉᆞᆫ者쟈ㅣ 이 丘구ㅣ니라

○子ᄌᆞㅣ 以이四ᄉᆞ教교ᄒᆞ시니 文문行힝忠츙信신이니라

子ᄌᆞㅣ 네ᄒᆞ로ᄡᅥ ᄀᆞᄅᆞ치시니 文문과 行힝과 忠츙과 信신이니라

○子ᄌᆞㅣ曰왈聖셩人인을吾오不블得득而이見견之지矣의어든得득見견君군子ᄌᆞ者쟈ㅣ면斯ᄉᆞ可가矣의니라

子ᄌᆞㅣᄀᆞᆯᄋᆞ샤ᄃᆡ聖셩人인을내어더보디몯ᄒᆞ거든君군子ᄌᆞ를어더보면이可가ᄒᆞ니라

子ᄌᆞㅣ曰왈善셩人인을吾오不블得득而이見견之지矣의어든得득見견有유恒ᄒᆞᆼ者쟈ㅣ면斯ᄉᆞ可가矣의니라

子ᄌᆞㅣᄀᆞᆯᄋᆞ샤ᄃᆡ善셩人인을내어더보

디몰ᄒᆞ거든恒ᄒᆞᆼ인ᄂᆞᆫ者쟈를어더보면
이可가ᄒᆞ니라
亡무而이為위有유ᄒᆞ며虛허而이為위盈영
ᄒᆞ며約약而이為위泰태면難난乎호有유恒
ᄒᆞᆼ矣의니라
亡무호ᄃᆡ有유호라ᄒᆞ며虛허호ᄃᆡ盈영
호라ᄒᆞ며約약호ᄃᆡ泰태호라ᄒᆞ면恒ᄒᆞᆼ
이심이어려우니라
○子ᄌᆞᄂᆞᆫ釣됴而이不블綱강ᄒᆞ시며弋익不
블射셕宿슉이러시다

子ᄌᆞᄂᆞᆫ釣됴ᄒᆞ시고綱강티아니ᄒᆞ시며
弋익ᄒᆞ샤ᄃᆡ宿슉을射셕디아니ᄒᆞ더시
다

○子ᄌᆞㅣ曰왈蓋개有유不블知지而이作
작之지者쟈 아我아無무是시也야ㅣ로라多
다聞문ᄒᆞ야擇ᄐᆡᆨ其기善션者쟈而이從종之
지ᄒᆞ며多다見견而이識지之지ㅣ知지之지
次ᄎᆞ也야ㅣ니라

子ᄌᆞㅣᄀᆞᆯᄋᆞ샤ᄃᆡ아디몯ᄒᆞ고作작ᄒᆞ리
인ᄂᆞ냐내이업소라해들어그善션을擇

퇵ᄒᆞ야좃ᄎᆞ며해보와識지홈이知지의
次ᄎᆞㅣ니라
○互호鄕향은難난與여言언이러니童동子
ᄌᆞㅣ見현거ᄂᆞᆯ門문人인이惑혹ᄒᆞᆫ대
互호鄕향은더브러말홈이어렵더니童
동子ᄌᆞㅣ뵈ᄋᆞ와ᄂᆞᆯ門문人인이惑혹ᄒᆞᆫ
대
子ᄌᆞㅣ曰왈與여其기進진也야오ㅣ不블與
여其기退퇴也야ㅣ니唯유何하甚심이리오人
인이潔결己긔以이進진이어든與여其기潔

결也야ㅣ오不블保보其기往왕也야ㅣ며
子ᄌᆞㅣ골ᄋᆞ샤ᄃᆡ사ᄅᆞᆷ이己긔를潔결ᄒᆞ
야ᄡᅥ進진ᄒᆞ거든그潔결을與여ᄒᆞ고그
往왕을保보티몯ᄒᆞ며그進진홈을與여
ᄒᆞ고그退퇴를與여홈이아니니엇디甚
심히ᄒᆞ리오
○子ᄌᆞㅣ曰왈仁인遠원乎호哉재아我아
欲욕仁인이면斯ᄉᆞ仁인이至지矣의니라
子ᄌᆞㅣ골ᄋᆞ샤ᄃᆡ仁인이머냐내仁인코
자ᄒᆞ면이예仁인이니르ᄂᆞ니라

○陳진司ᄉᆞ敗패ㅣ問문昭쇼公공이知지禮례乎호잇가 孔공子ᄌᆞㅣ曰왈知지禮례ㅣ시니라

陳진ㅅ司ᄉᆞ敗패ㅣ믇ᄌᆞ오ᄃᆡ昭쇼公공이禮례를아ᄅᆞ시더니잇가孔공子ᄌᆞㅣᄀᆞᄅᆞ샤ᄃᆡ禮례를아ᄅᆞ시더니라

孔공子ᄌᆞㅣ退퇴커시ᄂᆞᆯ揖읍巫무馬마期긔而이進진之지曰왈吾오聞문君군子ᄌᆞᄂᆞᆫ不블黨당이라ᄒᆞ니君군子ᄌᆞ도亦역黨당乎호아君군이取취於어吳오ᄒᆞ니爲위同동姓셩

이라謂위之지吳오孟밍子ᄌᆞㅣ라ᄒᆞ니君군而이
知지禮례면孰슉不블知지禮례리오
孔공子ᄌᆞㅣ退퇴ᄒᆞ야시늘巫무馬마期
긔를揖읍ᄒᆞ야나오와골오ᄃᆡ나ᄂᆞᆫ드르
니君군子ᄌᆞᄂᆞᆫ黨당티아니ᄒᆞᆫ다ᄒᆞ니君
군子ᄌᆞ도ᄯᅩᄒᆞᆫ黨당ᄒᆞᄂᆞ냐君군이吳오
애取취ᄒᆞ니同동姓셩인디라닐오ᄃᆡ吳
오孟밍子ᄌᆞㅣ라ᄒᆞ니君군이오禮례를
알면뉘禮례를아디몯ᄒᆞ리오
巫무馬마期긔ㅣ以이告고ᄒᆞᆫ대子ᄌᆞㅣ曰왈

丘구也야ㅣ幸힝이로다 苟구有유過과ㅣ어든
人인必필知지之지온여
巫무馬마期긔ㅣ뻐告고ᄒᆞᆫ대子ᄌᆞㅣ골
ᄋᆞ샤ᄃᆡ丘구ㅣ幸힝이로다진실로허믈
이잇거든사ᄅᆞᆷ이반ᄃᆞ시알고녀
○子ᄌᆞㅣ與여人인歌가而이善션이어든必
필使ᄉᆞ反반之지ᄒᆞ시고而이後후和화之지
러시다
子ᄌᆞㅣ사ᄅᆞᆷ으로더브러歌가ᄒᆞ심애善
션ᄒᆞ거든반ᄃᆞ시ᄒᆞ여곰反반ᄒᆞ라ᄒᆞ시

고後후에和화ᄒᆞ더시다

○子ᄌᆞㅣ曰왈文문莫막吾오猶유人인也야아躬궁行ᄒᆡᇰ君군子ᄌᆞᄂᆞᆫ則즉吾오ㅣ未미之지有유得득호라

子ᄌᆞㅣ골ᄋᆞ샤ᄃᆡ文문은아니내사ᄅᆞᆷ고ᄐᆞ나君군子ᄌᆞ를몸소行ᄒᆡᇰᄒᆞᆷ은곧내得득ᄒᆞᆷ이잇디몯호라

○子ᄌᆞㅣ曰왈若약聖셩與여仁인은則즉吾오豈긔敢감이리오抑억爲위之지不블厭염ᄒᆞ며誨회人인不블倦권은則즉可가謂위

云운爾이已이矣의니라 公공西셔華화ㅣ曰
왈正졍唯유弟뎨子ᄌᆞㅣ不블能능學학也
야ㅣ로소이다
子ᄌᆞㅣ골ᄋᆞ샤ᄃᆡ만일聖셩과다ᄆᆞᆺ仁인
은내엇디敢감ᄒᆞ리오爲위홈을厭염티
아니ᄒᆞ며사ᄅᆞᆷᄀᆞᄅᆞ침을게을리아니홈
은곧可가히니ᄅᆞᆯᄯᆞᄅᆞᆷ이니라公공西셔
華화ㅣ골오ᄃᆡ正졍히弟뎨子ᄌᆞㅣ能능
히學학디몯홈이로소이다
○子ᄌᆞㅣ疾질病병이어시ᄂᆞᆯ子ᄌᆞ路로ㅣ請청

禱도ᄒᆞᆫ대子ᄌᆞㅣ曰왈有유諸저아子ᄌᆞ路로
ㅣ對ᄃᆡ曰왈有유之지ᄒᆞ니誄뢰예曰왈禱도
爾이于우上샹下하神신祇기라ᄒᆞ도소이다子ᄌᆞ
ㅣ曰왈丘구之지禱도ㅣ久구矣의니라
子ᄌᆞㅣ疾질이病병ᄒᆞ거시ᄂᆞᆯ子ᄌᆞ路로
ㅣ禱도홈을請쳥ᄒᆞᆫ대子ᄌᆞㅣ골ᄋᆞ샤ᄃᆡ
인ᄂᆞ냐子ᄌᆞ路로ㅣ對ᄃᆡᄒᆞ야골오ᄃᆡ인
ᄂᆞ니誄뢰예골오ᄃᆡ너ᄅᆞᆯ上샹下하神
신祇기예비다ᄒᆞ도소이다子ᄌᆞㅣ골ᄋᆞ
샤ᄃᆡ丘구의禱도홈이오라니라

○子ᄌᆞㅣ曰왈奢샤則즉不블孫손ᄒᆞ고儉검則즉固고ㅣ니與여其기不블孫손也야론寧녕固고ㅣ니라

子ᄌᆞㅣᄀᆞᆯᄋᆞ샤ᄃᆡ奢샤ᄒᆞ면孫손티아니ᄒᆞ고儉검ᄒᆞ면固고ᄒᆞᄂᆞ니그孫손티아니홈오로더브러론출하리固고홀띠니라

○子ᄌᆞㅣ曰왈君군子ᄌᆞᄂᆞᆫ坦탄蕩탕蕩탕이오小쇼人인은長쟝戚쳑戚쳑이니라

子ᄌᆞㅣᄀᆞᆯᄋᆞ샤ᄃᆡ君군子ᄌᆞᄂᆞᆫ坦탄히蕩

탕蕩탕ᄒᆞ고小쇼人인ᄋᆞᆫ기리戚쳑戚쳑

ᄒᆞᄂᆞ니라

○子ᄌᆞᄂᆞᆫ溫온而이厲려ᄒᆞ시며威위而이不

블猛밍ᄒᆞ시며恭공而이安안이러시다

子ᄌᆞᄂᆞᆫ溫온호ᄃᆡ厲려ᄒᆞ시며威위호ᄃᆡ

猛밍티아니ᄒᆞ시며恭공호ᄃᆡ安안ᄒᆞ더

시다

泰태伯빅第뎨八팔

子ᄌᆞㅣ曰왈泰태伯빅은其기可가謂위至

지德덕也야已이矣의로다三삼以이天텬下

하讓양ᄒᆞ되民민無무得득而이稱칭焉언이온여

子ᄌᆞㅣᄀᆞᆯᄋᆞ샤ᄃᆡ泰태伯ᄇᆡᆨ은그可가히
지극ᄒᆞᆫ德덕이라니ᄅᆞᆯᄯᆞᄅᆞᆷ이로다세번
天텬下하로ᄡᅥ讓양ᄒᆞ되民민이시러곰
稱칭홈이업고녀

○子ᄌᆞㅣ曰왈恭공而이無무禮례則즉勞
로ᄒᆞ고愼신而이無무禮례則즉葸싀ᄒᆞ고勇용
而이無무禮례則즉亂란ᄒᆞ고直직而이無무
禮례則즉絞교ㅣ니라

子ᄌᆞㅣᄀᆞᆯᄋᆞ샤ᄃᆡ恭공ᄒᆞ고禮례ㅣ업스
면勞로ᄒᆞ고愼신ᄒᆞ고禮례ㅣ업스면葸
싀ᄒᆞ고勇용ᄒᆞ고禮례ㅣ업스면亂란ᄒᆞ
고直직ᄒᆞ고禮례ㅣ업스면絞교ᄒᆞᄂᆞ니
라

君군子ᄌᆞㅣ篤독於어親친則즉民민興흥
於어仁인ᄒᆞ고故고舊구를不불遺유則즉民
민不불偸투ㅣ니라

君군子ᄌᆞㅣ親친애篤독ᄒᆞ면民민이仁
인애興흥ᄒᆞ고故고舊구를遺유티아니

ᄒᆞ면民민이偸투티아니ᄒᆞᄂᆞ니라

○曾증子ᄌᆞㅣ有유疾질ᄒᆞ샤召쇼門문弟뎨子ᄌᆞ曰왈啓계予여足족ᄒᆞ며啓계予여手슈ᄒᆞ라詩시云운戰젼戰젼兢긍兢긍ᄒᆞ야如여臨림深심淵연ᄒᆞ며如여履리薄박冰빙이라ᄒᆞ니而이今금而이後후에아吾오知지免면夫부ㅣ와라小쇼子ᄌᆞ아

曾증子ᄌᆞㅣ疾질이겨샤門문弟뎨子ᄌᆞ를블러골ᄋᆞ샤ᄃᆡ내발을啓계ᄒᆞ며내손을啓계ᄒᆞ라詩시예닐오ᄃᆡ戰젼戰젼ᄒᆞ

며兢긍兢긍ᄒᆞ야기픈모ᄉᆞᆯ디ᄂᆞᆺᄃᆞᆺᄒᆞ며
여론어름을ᄇᆞᆲᄃᆞᆺᄒᆞ다ᄒᆞ니이젠後후에
아내免면홈을알과라小쇼子ᄌᆞ아

○曾증子ᄌᆞㅣ有유疾질이어시ᄂᆞᆯ孟ᄆᆡᆼ敬경子
ᄌᆞㅣ問문之지러니

曾증子ᄌᆞㅣ疾질이잇거시ᄂᆞᆯ孟ᄆᆡᆼ敬경
子ᄌᆞㅣ묻ᄌᆞᆸ더니

曾증子ᄌᆞㅣ言언曰왈鳥됴之지將쟝死ᄉᆞ
애其기鳴명也야ㅣ哀ᄋᆡᄒᆞ고人인之지將쟝
死ᄉᆞ애其기言언也야ㅣ善션이니라

曾증子ᄌᆞㅣ닐러ᄀᆞᆯᄋᆞ샤ᄃᆡ새장ᄎᆞᆺ죽음
애그우롬이슬프고사ᄅᆞᆷ이장ᄎᆞᆺ죽음애
그말이어디ᄂᆞ니라
君군子ᄌᆞㅣ所소貴귀乎호道도者쟈ㅣ三
삼이니動동容용貌모애斯ᄉᆞ遠원暴포慢만
矣의며正정顔안色ᄉᆡᆨ애斯ᄉᆞ近근信신矣
의며出츌辭ᄉᆞ氣긔애斯ᄉᆞ遠원鄙비倍패
矣의니籩변豆두之지事ᄉᆞ則즉有유司ᄉᆞ
ㅣ存존이니라
君군子ᄌᆞㅣ道도애貴귀히너기논배세

히니容용貌모를動동ᄒᆞ욤애이예暴포
慢만을멀리ᄒᆞ며ᄂᆞᆺ빗출正졍ᄒᆞ욤애이
예信신에갓가오며辭ᄉᆞ氣긔를내욤애
이예鄙비倍패를멀리흘띠니籩변豆두
ㅅ일은有유司ᄉᆞㅣ인ᄂᆞ니라

○曾증子ᄌᆞㅣ曰왈以이能능으로問문於어
不블能능ᄒᆞ며以이多다로問문於어寡과ᄒᆞ며
有유若약無무ᄒᆞ며實실若약虛허ᄒᆞ며犯범而
이不블校교를昔셕者쟈吾오友우ㅣ嘗상
從죵事ᄉᆞ於어斯ᄉᆞ矣의러니라

曾증子ᄌᆞㅣ ᄀᆞᆯᄋᆞ샤ᄃᆡ 能능으로ᄡᅥ 不블能능애 무르며 多다로ᄡᅥ 寡과애 무르며 이슈ᄃᆡ 업슨ᄃᆞᆺᄒᆞ며 實실호ᄃᆡ 虛허ᄒᆞᆫᄃᆞᆺᄒᆞ며 犯범ᄒᆞ야도 校교티 아니홈을 녜 내 벋이 일ᄶᆞᆨ이 예 從종事ᄉᆞᄒᆞ더니라

○曾증子ᄌᆞㅣ 曰왈 可가以이 託탁六륙尺척之지孤고ᄒᆞ며 可가以이 寄긔百ᄇᆡᆨ里리之지命명이오 臨림大대節절而이 不블可가奪탈也야면 君군子ᄌᆞ人인與여아 君군子ᄌᆞ人인也야ㅣ니라

曾증子ᄌᆞㅣ ᄀᆞᄅᆞ샤ᄃᆡ 可가히 ᄡᅥ 六륙尺쳑ㅅ 孤고ᄅᆞᆯ 託탁ᄒᆞ얌즉ᄒᆞ며 可가히 ᄡᅥ 百ᄇᆡᆨ里리ㅅ 命명을 寄긔ᄒᆞ얌즉ᄒᆞ고 大대節졀애 臨림ᄒᆞ야 可가히 奪탈티 몯ᄒᆞ리면 君군子ᄌᆞ앳 사ᄅᆞᆷ가 君군子ᄌᆞ앳 사ᄅᆞᆷ이니라

○曾증子ᄌᆞㅣ 曰왈 士ᄉᆞㅣ 不블可가以이不블弘홍毅의니 任임重즁而이道도遠원이니라

曾증子ᄌᆞㅣ ᄀᆞᄅᆞ샤ᄃᆡ 士ᄉᆞㅣ 可가히 ᄡᅥ

弘홍ᄒᆞ며毅의티아니티몯ᄒᆞᆯ꺼시니任임이重즁ᄒᆞ고道도ㅣ遠원ᄒᆞ니라

仁인以이為위己긔任임이니不블亦역重즁乎호아死ᄉᆞ而이後후已이니不블亦역遠원乎호아

仁인으로ᄡᅥ몸의任임을삼ᄂᆞ니ᄯᅩᄒᆞᆫ重즁티아니ᄒᆞ냐죽은後후에마ᄂᆞ니ᄯᅩᄒᆞᆫ遠원티아니ᄒᆞ냐

○子ᄌᆞㅣ曰왈興흥於어詩ᄉᆞᄒᆞ며

子ᄌᆞㅣ골ᄋᆞ샤ᄃᆡ詩시예興흥ᄒᆞ며

立립於어禮례ᄒᆞ며

禮례예立립ᄒᆞ며

成성於어樂악이니라

樂악애成성ᄒᆞᄂᆞ니라

○子ᄌᆞㅣ曰왈民민은可가使ᄉᆞ由유之지

오不블可가使ᄉᆞ知지之지니라

子ᄌᆞㅣᄀᆞᆯᄋᆞ샤ᄃᆡ民민은可가히ᄒᆞ여곰

由유케ᄒᆞ고可가히ᄒᆞ여곰알게몯ᄒᆞᄂᆞ

니라

○子ᄌᆞㅣ曰왈好호勇용疾질貧빈이亂란

也야ㅣ오人인而이不블仁인을疾질之지已
이甚심이亂란也야ㅣ니라
子ᄌᆞㅣᄀᆞᆯᄋᆞ샤ᄃᆡ勇용을됴히너기고貧
빈을疾질홈이亂란홈이오사ᄅᆞᆷ이오仁
인티아니ᄒᆞ니ᄅᆞᆯ疾질홈을너모甚심히
홈이亂란홈이니라
○子ᄌᆞㅣ曰왈如여有유周쥬公공之지才
재之지美미오도使ᄉᆞ驕교且챠吝린이면其기
餘여ᄂᆞᆫ不블足족觀관也야已이니라
子ᄌᆞㅣᄀᆞᆯᄋᆞ샤ᄃᆡ만일에周쥬公공의才

지의義미홈을두고도ᄒᆞ야곰驕교ᄒᆞ고
또吝린ᄒᆞ면그나믄거슨足죡히보디몯
ᄒᆞᆯ꺼시니라
○子ᄌᆞㅣ曰왈三삼年년學학에不블至지
於어穀곡을不블易이得득也야ㅣ니라
子ᄌᆞㅣᄀᆞᆯᄋᆞ샤ᄃᆡ三삼年년을學학홈애
穀곡애ᄠᅳᆮᄒᆞ디아니ᄒᆞᄂᆞ니롤수이얻디
몯ᄒᆞ리니라
○子ᄌᆞㅣ曰왈篤독信신好호學학ᄒᆞ며守슈
死ᄉᆞ善션道도ㅣ니라

子ᄌᆞㅣ ᄀᆞᆯᄋᆞ샤ᄃᆡ 篤독히 信신ᄒᆞ고 도 學
학을 好호ᄒᆞ며 死ᄉᆞ를 守슈ᄒᆞ고 도 道도
를 善션히 홀띠니라

危위邦방不불入입ᄒᆞ고 亂란邦방不불居거
ᄒᆞ며 天텬下하ㅣ 有유道도則즉見현ᄒᆞ고 無무
道도則즉隱은이니라

危위ᄒᆞᆫ 邦방애 入입디 아니ᄒᆞ고 亂란ᄒᆞᆫ
邦방애 居거티 아니ᄒᆞ며 天텬下하ㅣ 道
도ㅣ 이시면 見현ᄒᆞ고 道도ㅣ 업ᄉᆞ면 隱
은홀띠니라

邦방有유道도애貧빈且차賤천焉언이恥치也야며邦방無무道도애富부且차貴귀焉언이恥치也야ㅣ니라

邦방이道도ㅣ이숌애貧빈ᄒᆞ고ᄯᅩ賤천홈이븟그러우며邦방이道도ㅣ업숨애富부ᄒᆞ고ᄯᅩ貴귀홈이븟그러우니라

○子ᄌᆞㅣ曰왈不블在지其기位위ᄒᆞᆫ不블謀모其기政졍이니라

子ᄌᆞㅣᄀᆞᆯᄋᆞ샤ᄃᆡ그位위예잇디아니ᄒᆞ얀그政졍을謀모티아니홀ᄯᅵ니라

○子ᄌᆞㅣ 曰왈 師ᄉᆞ摯지之지始시예 關관雎져之지亂란이 洋양洋양乎호盈영耳이哉지라

子ᄌᆞㅣ 골ᄋᆞ샤ᄃᆡ 師ᄉᆞ摯지의 始시예 關관雎져人亂란이 洋양洋양히 귀예 盈영ᄒᆞ다

○子ᄌᆞㅣ 曰왈 狂광而이不블直직ᄒᆞ며 侗통而이不블愿원ᄒᆞ며 悾공悾공而이不블信신을 吾오不블知지之지矣의로라

子ᄌᆞㅣ 골ᄋᆞ샤ᄃᆡ 狂광호ᄃᆡ 直직디 아니

ᄒᆞ며侗통호ᄃᆡ愿원티아니ᄒᆞ며悾공悾
공호ᄃᆡ信신티아닌이ᄅᆞᆯ내아디몯ᄒᆞ노
라
○子ᄌᆞㅣ曰왈學학如여不블及급이오猶유
恐공失실之지니라
子ᄌᆞㅣ골ᄋᆞ샤ᄃᆡ學학홈을밋디몯ᄒᆞᆯ듯
ᄒᆞ고오히려일흘가저허ᄒᆞᆯ띠니라
○子ᄌᆞㅣ曰왈巍외巍외乎호舜슌禹우之
지有유天텬下하也야而이不블與여焉언
이여

子ᄌᆞㅣ ᄀᆞᆯᄋᆞ샤ᄃᆡ 巍외巍외ᄒᆞ다 舜슌과
禹우의 天텬下하ᄅᆞᆯ 두시되 與여티 아니
ᄒᆞ심이여

○子ᄌᆞㅣ 曰왈 大대哉ᄌᆡ라 堯요之지爲위
君군也야ㅣ여 巍외巍외乎호 唯유天텬이 爲
위大대어시늘 唯유堯요ㅣ 則측之지ᄒᆞ시니 蕩
탕蕩탕乎호 民민無무能능名명焉언이로다

子ᄌᆞㅣ ᄀᆞᆯᄋᆞ샤ᄃᆡ 크다 堯요의 님금되샴
이여 巍외巍외ᄒᆞ다 오직 하ᄂᆞᆯ히 크거시
ᄂᆞᆯ 오직 堯요ㅣ 則측ᄒᆞ시니 蕩탕蕩탕ᄒᆞ

다民민이能능히일홈홈이업도다

巍외巍외乎호其기有유成셩功공也야여ㅣ

煥환乎호其기有유文문章쟝이여

巍외巍외ᄒᆞ다그成셩功공이이숌이여

煥환ᄒᆞ다그文문章쟝이이숌이여

○舜슌이有유臣신五오人인而이天텬下

하ㅣ治치ᄒᆞ니라

舜슌이신하다ᄉᆞᆺ사ᄅᆞᆷ을두심애天텬下

하ㅣ다스니라

武무王왕이曰왈予여有유亂란臣신十십

人인ᄒᆞ라
武무王왕이 골ᄋᆞ샤ᄃᆡ 내 다ᄉᆞ리ᄂᆞᆫ 신하
열 사ᄅᆞᆷ을 두노라
孔공子ᄌᆞㅣ 曰왈 才ᄌᆡ難난이 不불其기然
연乎호아 唐당虞우之지際제ㅣ 於어斯ᄉᆞ
ㅣ 爲위盛셩ᄒᆞ나 有유婦부人인焉언이라 九구
人인而이已이니라
孔공子ᄌᆞㅣ 골ᄋᆞ샤ᄃᆡ 才ᄌᆡ 어렵다 홈이
그 그러티 아니ᄒᆞ냐 唐당虞우ㅅ 際제ㅣ
이에셔 盛셩ᄒᆞ나 婦부人인 이 인ᄂᆞᆫ디라

아홉사ᄅᆞᆷ일ᄯᆞᄅᆞᆷ이니라

三삼分분天텬下하애有유其기二이샤ᄒᆞ以이服복事ᄉᆞ殷은ᄒᆞ시니周쥬之지德덕은其기可가謂위至지德덕也야已이矣의로다

天텬下하를三삼分분홈애그둘흘두샤써殷을服복事ᄉᆞᄒᆞ시니周쥬의德덕은그可가히지극ᄒᆞᆫ德덕이라니ᄅᆞᆯᄯᆞᄅᆞᆷ이로다

○子ᄌᆞ｜曰왈禹우ᄂᆞᆫ吾오無무間간然연矣의로다菲비飮음食식而이致치孝효乎호

鬼귀神신ᄒᆞ시며 惡악衣의服복而이致치美
미乎호黻블冕면ᄒᆞ시며 卑비宮궁室실而이
盡진力력乎호溝구洫혁ᄒᆞ시니 禹우ᄂᆞᆫ吾오
無무間간然연矣의로다

子ᄌᆞ ㅣ ᄀᆞᆯᄋᆞ샤ᄃᆡ 禹우ᄂᆞᆫ내間간然연홈
이업도다 飮음食식을菲비히ᄒᆞ시고 孝
효를鬼귀神신애닐위시며 衣의服복을
惡악히ᄒᆞ시고 美미를黻블冕면애닐위
시며 宮궁室실을ᄂᆞᆺ게ᄒᆞ시고 힘을溝구
洫혁애다ᄒᆞ시니 禹우ᄂᆞᆫ내間간然연홈

이업도다

子ᄌᆞ罕한第뎨九구

子ᄌᆞᄂᆞᆫ 罕한言언利리與여命명與여仁인이러시다

子ᄌᆞᄂᆞᆫ 利리와다ᄆᆞᆺ命명과다ᄆᆞᆺ仁인을 져기니ᄅᆞ더시다

○達달巷항黨당人인이曰왈大대哉ᄌᆡ라 孔공子ᄌᆞㅣ博박學학而이無무所소成셩名명이로다

達달巷항黨당人인이ᄀᆞᆯ오ᄃᆡ크다孔공

子ᄌᆞㅣ여 넙이 學학호ᄃᆡ 名명을 成셩ᄒᆞᆫ
배 업도다
子ᄌᆞㅣ 聞문之지ᄒᆞ시고 謂위門문弟뎨子ᄌᆞ
曰왈 吾오何하執집고 執집御어乎호아 執
집射샤乎호아 吾오ㅣ 執집御어矣의로리라
子ᄌᆞㅣ 드르시고 門문弟뎨子ᄌᆞᄃᆞ려 닐
어ᄀᆞᆯᄋᆞ샤ᄃᆡ 내 므서슬 執집ᄒᆞ료 御어를
執집ᄒᆞ랴 射샤를 執집ᄒᆞ랴 내 御어를 執
집호리라
○子ᄌᆞㅣ 曰왈 麻마冕면이 禮례也야ㅣ어늘

今금也야純슌ᄒᆞ니儉검이라吾오從종衆즁호리라

子ᄌᆞㅣ ᄀᆞᄅᆞ샤ᄃᆡ 麻마로 冕면이 禮례어늘 이제 純슌으로 ᄒᆞ니 儉검ᄒᆞ디라 내 衆즁을 從종호리라

拜비下하ㅣ禮례也야ㅣ어늘今금拜비乎호上상ᄒᆞ니泰태也야ㅣ라雖슈違위衆즁이나吾오從종下하호리라

下하에셔 拜비홈이 禮례어늘 이제 上상에셔 拜비ᄒᆞ니 泰태ᄒᆞ디라 비록 衆즁을

違위ᄒᆞ나 下하를 從죵호리라

○子ᄌᆞㅣ 絶절四ᄉᆞㅣ러시니 毋무意의 毋무必
필 毋무固고 毋무我아ㅣ러시다

子ᄌᆞㅣ 四ᄉᆞㅣ 絶절터시니 意의ㅣ 업스
며 必필이 업스며 固고ㅣ 업스며 我아ㅣ
업더시다

○子ᄌᆞㅣ 畏외於어匡광이러시니

子ᄌᆞㅣ 匡광애 畏외ᄒᆞ더시니

曰왈 文문王왕이 旣긔沒몰ᄒᆞ시니 文문不블
在ᄌᆡ玆ᄌᆞ乎호아

골ᄋᆞ샤ᄃᆡ文문王왕이이믜沒몰ᄒᆞ시니

文문이이에잇디아니ᄒᆞ냐

天텬之지將장喪상斯ᄉᆞ文문也야ㅣ신댄後

후死ᄉᆞ者쟈ㅣ不블得득與여於어斯ᄉᆞ文문

문也야ㅣ어니와天텬之지未미喪상斯ᄉᆞ文문

也야ㅣ시니匡광人인이其기如여予여에何

하오ㅣ리

하ᄂᆞᆯ히쟝ᄎᆞᆺ이文문을喪상ᄒᆞ실ᄯᅵᆫ댄後

후에死ᄉᆞ者쟈ㅣ시러곰이文문에與

여ᄐᆡ몯ᄒᆞ려니와하ᄂᆞᆯ히이文문을喪상

티아녀겨시니匡광人인이그내게엇디ᄒᆞ리오

○大태宰재ㅣ問문於어子ᄌᆞ貢공曰왈夫부子ᄌᆞᄂᆞᆫ聖셩者쟈與여아何하其기多다能능也야오

大태宰재ㅣ子ᄌᆞ貢공의게무러ᄀᆞᆯ오ᄃᆡ夫부子ᄌᆞᄂᆞᆫ聖셩이신者쟈ㅣ가엇디그能능이하시뇨

子ᄌᆞ貢공이曰왈固고天텬縱죵之지將장聖셩이시고又우多다能능也야ㅣ시니라

子ᄌᆞ貢공이ᄀᆞᆯ오ᄃᆡ진실로天텬이縱죵
ᄒᆞ신쟝ᄎᆞᆺ聖셩이시고ᄯᅩ能능이하시니
라

子ᄌᆞ ㅣ聞문之지曰왈大태宰재ㅣ知지我
아乎호ᄂᆞᆫ뎌吾오ㅣ少쇼也야애賤쳔故고로
多다能능鄙비事ᄉᆞᄒᆞ니君군子ᄌᆞᄂᆞᆫ多다乎
호哉재아不블多다也야ㅣ니라

子ᄌᆞ ㅣ드ᄅᆞ시고ᄀᆞᆯᄋᆞ샤ᄃᆡ大태宰재나
ᄅᆞᆯ아ᄂᆞᆫ뎌내졈은제賤쳔ᄒᆞᆫ故고로鄙비
ᄒᆞᆫ일ᄋᆞᆯ해能능히ᄒᆞ니君군子ᄌᆞᄂᆞᆫ多다

ᄒᆞᆯ것가多다티아닐꺼시니라

牢로ㅣ曰왈子ᄌᆞㅣ云운吾오ㅣ不블試시故고로藝예라ᄒᆞ시니라

牢로ㅣᄀᆞᆯ오ᄃᆡ子ᄌᆞㅣ닐ᄋᆞ샤ᄃᆡ내試시티몯ᄒᆞᆫ故고로藝예ᄒᆞ라ᄒᆞ시니라

○子ᄌᆞㅣ曰왈吾오ㅣ有유知지乎호哉재아無무知지也야ㅣ로라有유鄙비夫부ㅣ問문於어我아ᄒᆞ되空공空공如여也야ㅣ라도我아ㅣ叩구其기兩량端단而이竭갈焉언ᄒᆞ노라

子ᄌᆞㅣ ᄀᆞᆯᄋᆞ샤ᄃᆡ 내 알옴이 인ᄂᆞ냐 알옴
이 업소라 鄙비夫부ㅣ 이셔 내게 무로ᄃᆡ
空공空공ᄒᆞ야도 내 그 두 긑틀 ᄆᆞ구ᄒᆞ야
竭갈ᄒᆞ노라

○子ᄌᆞㅣ 曰왈 鳳봉鳥됴ㅣ 不블至지ᄒᆞ며 河
하不블出츌圖도ᄒᆞ니 吾오已이矣의夫부뎌
子ᄌᆞㅣ ᄀᆞᆯᄋᆞ샤ᄃᆡ 鳳봉鳥됴ㅣ 니르디 아
니ᄒᆞ며 河하애 圖도ㅣ 나디 아니ᄒᆞ니 내
마롤띤뎌

○子ᄌᆞㅣ 見견齊지衰최者쟈와 冕면衣의

裳상者쟈와與여瞽고者쟈ᄒᆞ고시見견之지
예雖슈少쇼ㅣ나必필作작ᄒᆞ며시過과之지必
필趨추ㅣ러시다
子ᄌᆞㅣ齊ᄌᆡ衰최ᄒᆞᆫ者쟈와冕면ᄒᆞ고衣
의裳상ᄒᆞᆫ者쟈와다ᄆᆞᆺ瞽고者쟈ᄅᆞᆯ보시
고보심애비록少쇼ᄒᆞ나반ᄃᆞ시作작ᄒᆞ
시며디나심애반ᄃᆞ시趨추ᄒᆞ더시다
○顔안淵연이喟위然연歎탄曰왈仰앙之
지彌미高고ᄒᆞ며鑽찬之지彌미堅견ᄒᆞ며瞻쳠
之지在ᄌᆡ前젼이러니忽홀焉언在ᄌᆡ後후ㅣ로

다

顔안淵연이喟위然연히歎탄ᄒᆞ야골오ᄃᆡ仰앙홈애더옥놉프며鑽찬홈애더옥구ᄃᆞ며瞻쳠홈애앏픠잇더니믄득뒤헤잇도다

夫부子ᄌᆞㅣ循슌循슌然연善션誘유人인ᄒᆞ샤博박我아以이文문ᄒᆞ시고約약我아以이禮례ᄒᆞ시니라

夫부子ᄌᆞㅣ循슌循슌히사ᄅᆞᆷ을善션히誘유ᄒᆞ샤나ᄅᆞᆯ博박ᄒᆞ샤ᄃᆡ文문으로ᄡᅥ

ᄒᆞ시고나ᄅᆞᆯ約약ᄒᆞ샤ᄃᆡ禮례로ᄡᅥᄒᆞ시
니라

欲욕罷파不블能능ᄒᆞ야既긔竭갈吾오才ᄌᆡ
ᄒᆞ니如여有유所소立립이卓탁爾이라雖슈
欲욕從죵之지나末말由유也야已이로다

罷파코쟈ᄒᆞ나能능티몯ᄒᆞ야이믜내才
ᄌᆡ를竭갈호니立립ᄒᆞᆫ배卓탁홈이인ᄂᆞᆫ
ᄃᆞᆺᄒᆞᆫ디라비록좃고져ᄒᆞ나말미암옴이
업도다

○子ᄌᆞㅣ疾질病병디어시늘子ᄌᆞ路로ㅣ使ᄉᆞ

門문人인으로爲위臣신이러니

子ᄌᆞㅣ疾질이病병커시늘子ᄌᆞ路로ㅣ門문人인으로ᄒᆞ여곰臣신을사맛더니病병間간曰왈久구矣의哉ᄌᆡ라由유之지行ᄒᆡᆼ詐사也야여ㅣ無무臣신而이爲위有유臣신이ᄒᆞ니吾오誰슈欺긔오欺긔天텬乎호뎌

病병이間간ᄒᆞ심애ᄀᆞᆯᄋᆞ샤ᄃᆡ오래다由유의詐사ᄅᆞᆯ行ᄒᆡᆼ홈이여臣신업슬꺼시臣신두믈ᄒᆞ니내누를소기료하ᄂᆞᆯᄒᆞᆯ소긴뎌

且차予여ㅣ與여其기死ᄉᆞ於어臣신之지
手슈也야론無무寧녕死ᄉᆞ於어二이三삼
子ᄌᆞ之지手슈乎호아且차予여ㅣ縱종不
블得득大대葬장이나予여ㅣ死ᄉᆞ於어道도
路로乎호아
ᄯᅩ내그臣신의手슈에死ᄉᆞ홈으로더브
러론二이三삼子ᄌᆞ의手슈애死ᄉᆞ홈이
출티아니ᄒᆞ냐ᄯᅩ내비록시러곰大대葬
장티몯ᄒᆞ나내道도路로애死ᄉᆞᄒᆞ랴
○子ᄌᆞ貢공이曰왈有유美미玉옥於어斯

ᄉᆞᄒᆞ니 韞온匵독而이藏장諸저잇가求구善선
賈가而이沽고諸저잇가子ᄌᆞㅣ曰왈沽고之
지哉재沽고之지哉재나我아ᄂᆞᆫ待ᄃᆡ賈가
者쟈ㅣ也야로라

子ᄌᆞ貢공이 골오ᄃᆡ 美미ᄒᆞᆫ 玉옥이 이예
이시니 匵독애 韞온ᄒᆞ야 藏장ᄒᆞ링잇가
善션ᄒᆞᆫ 賈가ᄅᆞᆯ 求구ᄒᆞ야 沽고ᄒᆞ링잇가
子ᄌᆞㅣ 골ᄋᆞ샤ᄃᆡ 沽고홀디나 沽고홀디
나 나ᄂᆞᆫ 賈가ᄅᆞᆯ 기ᄃᆞ리ᄂᆞᆫ 者쟈ㅣ로라

○子ᄌᆞㅣ欲욕居거九구夷이러시니

子ᄌᆞㅣ九구夷이예居거코져ᄒᆞ더시니
或혹曰왈陋루ㅣ커니如여之지何하ㅣ잇고子ᄌᆞㅣ
曰왈君군子ᄌᆞㅣ居거之지면何하陋루之
지有유ㅣ리오
或혹이ᄀᆞᆯ오ᄃᆡ陋루ᄒᆞ거니엇디ᄒᆞ링잇
고子ᄌᆞㅣᄀᆞᆯᄋᆞ샤ᄃᆡ君군子ᄌᆞㅣ居거ᄒᆞ
면므슴陋루홈이이시리오
○子ᄌᆞㅣ曰왈吾오ㅣ自ᄌᆞ衛위反반魯로
然연後후에樂악正정ᄒᆞ야雅아頌송이各각
得득其기所소ᄒᆞ니라

子ᄌᆞㅣᄀᆞᆯᄋᆞ샤ᄃᆡ내ㅣ衛위로브터魯로애도라온然연後후에樂악이正정ᄒᆞ야雅아와頌송이각각그所소를得득ᄒᆞ니라

○子ᄌᆞㅣ曰왈出츌則즉事ᄉᆞ公공卿경ᄒᆞ고入입則즉事ᄉᆞ父부兄형ᄒᆞ며喪상事ᄉᆞ를不불敢감不불勉면ᄒᆞ며不불爲위酒쥬困곤이何하有유於어我아哉ᄌᆡ오

子ᄌᆞㅣᄀᆞᆯᄋᆞ샤ᄃᆡ나ᄂᆞᆫ公공卿경을셤기고드러ᄂᆞᆫ父부兄형을셤기며喪상事ᄉᆞ

를敢감히힘쓰디아니티아니ᄒᆞ며술의
困곤홈이되디아니홈이므스거시내게
인ᄂᆞ뇨
○子ᄌᆞㅣ在ᄌᆡ川천上샹曰왈逝셔者쟈ㅣ
如여斯ᄉᆞ夫분뎌不블舍샤晝쥬夜야ㅣ로다
子ᄌᆞㅣ川천上샹의겨셔ᄀᆞᆯᄋᆞ샤ᄃᆡ逝셔
ᄒᆞᄂᆞᆫ者쟈ㅣ이ᄀᆞᆮᄐᆞᆫ뎌晝쥬夜야의舍샤
티아니ᄒᆞ놋다
○子ᄌᆞㅣ曰왈吾오未미見견好호德덕이
如여好호色ᄉᆡᆨ者쟈也야케라

子ᄌᆞㅣ ᄀᆞᆯᄋᆞ샤ᄃᆡ 내 德덕을 됴히 너김이
色ᄉᆡᆨ 됴히 너김ᄀᆞᆮ티 ᄒᆞᄂᆞᆫ 이를 보디 몯게
라

○子ᄌᆞㅣ 曰왈 譬비 如여 爲위 山산애 未미
成셩 一일 簣궤ᄒᆞ야 止지도 吾오 止지也야ㅣ며
譬비 如여 平평地디예 雖슈 覆복 一일 簣궤
나 進진도 吾오 往왕也야ㅣ니라

子ᄌᆞㅣ ᄀᆞᆯᄋᆞ샤ᄃᆡ 譬비컨댄 뫼ᄒᆞᆯ ᄆᆡᆼᄀᆞ롬
애 ᄒᆞᆫ 簣궤를 일오디 몯ᄒᆞ야셔 그쳠도 내
의 그침이 ᄀᆞᆮᄐᆞ며 譬비컨댄 平평地디예

비록一簣궤를覆복ᄒᆞ나나아감도내의
감ᄀᆞᄐᆞ니라
○子ᄌᆞㅣ曰왈語어之지而이不블惰타者
쟈ᄂᆞᆫ其기回회也야與연뎌
子ᄌᆞㅣᄀᆞᄅᆞ샤ᄃᆡ語어ᄒᆞᆷ애惰타티아니
ᄒᆞᄂᆞᆫ이ᄂᆞᆫ그回회ᄂᆞᆫ뎌
○子ᄌᆞㅣ謂위顔안淵연曰왈惜셕乎호ㅣ라
吾오見견其기進진也야ㅣ오未미見견其기
止지也야호라
子ᄌᆞㅣ顔안淵연을닐어ᄀᆞᄅᆞ샤ᄃᆡ惜셕

홉다내그나아감을보고그그침을보디
몯호라
○子ᄌᆞㅣ曰왈苗묘而이不블秀슈者쟈ㅣ
有유矣의夫부며ㅣ秀슈而이不블實실者쟈
ㅣ有유矣의夫부뎌
子ᄌᆞㅣ글ᄋᆞ샤ᄃᆡ苗묘ᄒᆞ고秀슈티몯ᄒᆞ
리이시며秀슈ᄒᆞ고實실티몯ᄒᆞ리인ᄂᆞ
뎌
○子ᄌᆞㅣ曰왈後후生ᄉᆡᆼ이可가畏외니焉
언知지來ᄅᆡ者쟈之지不블如여今금也야

ㅣ리오 四ᄉᆞ十십五오十십而이無무聞문焉언
이면 斯ᄉᆞ亦역不블足죡畏외也야已이니라
子ᄌᆞㅣ ᄀᆞᆯᄋᆞ샤ᄃᆡ 後후生ᄉᆡᆼ이 可가히 두
려오니 엇디 來ᄅᆡ者쟈의 이제 곧디 몯홀
줄을 알리오 四ᄉᆞ十십五오十십이오 드
름이 업스면 이 ᄯᅩ ᄒᆞᆫ 足죡히 두렵디 아니
ᄒᆞ니라
○子ᄌᆞㅣ 曰왈 法법語어之지言언은 能능
無무從죵乎호아 改ᄀᆡ之지爲위貴귀니라 巽
손與여之지言언은 能능無무說열乎호아

繹역之지爲위貴귀니라說열而이不블繹역ᄒᆞ며從죵而이不블改ᄀᆡ면吾오末말如여之지何하也야已이矣의니라

子ᄌᆞㅣᄀᆞᆯᄋᆞ샤ᄃᆡ法법으로語어ᄒᆞᄂᆞᆫ말ᄋᆞᆫ能능히從죵홈이업ᄉᆞ랴改ᄀᆡ홈이貴귀ᄒᆞ니라巽손히與여ᄒᆞᄂᆞᆫ말ᄋᆞᆫ能능히說열홈이업ᄉᆞ랴繹역홈이貴귀ᄒᆞ니라說열호ᄃᆡ繹역디아니ᄒᆞ며從죵호ᄃᆡ改ᄀᆡ티아니ᄒᆞ면내엇디려뇨홈이업ᄉᆞ니라

○子ᄌᆞㅣ曰왈主쥬忠츙信신ᄒᆞ며毋무友우不블如여己긔者쟈ㅣ오過과則즉勿믈憚탄改ᄀᆡ니라

○子ᄌᆞㅣ曰왈三삼軍군은可가奪탈帥슈也야ㅣ어니와匹필夫부ᄂᆞᆫ不블可가奪탈志지也야ㅣ니라

子ᄌᆞㅣᄀᆞᆯᄋᆞ샤ᄃᆡ三삼軍군은可가히帥슈를奪탈ᄒᆞ려니와匹필夫부ᄂᆞᆫ可가히志지를奪탈티몯ᄒᆞᄂᆞ니라

○子ᄌᆞㅣ曰왈衣의敝폐縕온袍포ᄒᆞ야與여

衣의狐호貉락者쟈로立립而이不블恥치
者쟈ᄂᆞᆫ其기由유也야與여뎐
子ᄌᆞㅣᄀᆞᆯᄋᆞ샤ᄃᆡᄒᆡ여딘縕온袍포를닙
어狐호貉락닙은이로더브러立립호ᄃᆡ
붓그려아니ᄒᆞᄂᆞ니ᄂᆞᆫ그由유ㄴ뎌
不블忮기不블求구ㅣ면何하用용不블臧장
이리오
忮기티아니ᄒᆞ며求구티아니ᄒᆞ면엇디
ᄡᅥ臧장티아니ᄒᆞ리오
子ᄌᆞ路로ㅣ終종身신誦송之지ᄒᆞᆫ대子ᄌᆞㅣ

曰왈是시道도也야ㅣ何하足족以이臧장
이리오
子자路로ㅣ몸이뭇도록외오려ᄒᆞᆫ대子
자ㅣᄀᆞᆯᄋᆞ샤ᄃᆡ이道도ㅣ엇디足족히뻐
臧장ᄒᆞ리오
○子자ㅣ曰왈歲세寒한然연後후에知지
松송柏ᄇᆡᆨ之지後후彫됴也야ㅣ니라
子자ㅣᄀᆞᆯᄋᆞ샤ᄃᆡ歲세ㅣ寒한ᄒᆞᆫ然연後
후에松송柏ᄇᆡᆨ의後후에彫됴ᄒᆞᄂᆞᆫ줄을
아ᄂᆞ니라

○子ᄌᆞ｜曰왈知지者쟈ᄂᆞᆫ不블惑혹ᄒᆞ고仁
인者쟈ᄂᆞᆫ不블憂우ᄒᆞ고勇용者쟈ᄂᆞᆫ不블懼
구｜니라

子ᄌᆞ｜ᄀᆞᄅᆞ샤ᄃᆡ知지ᄒᆞᆫ者쟈ᄂᆞᆫ惑혹디
아니ᄒᆞ고仁인ᄒᆞᆫ者쟈ᄂᆞᆫ憂우티아니ᄒᆞ
고勇용ᄒᆞᆫ者쟈ᄂᆞᆫ懼구티아니ᄒᆞᄂᆞ니라

○子ᄌᆞ｜曰왈可가與여共공學학이오도未
미可가與여適뎍道도｜며可가與여適뎍道
도｜오도未미可가與여立립이며可가與여立
립이오도未미可가與여權권이니라

子ᄌᆞㅣ ᄀᆞᆯᄋᆞ샤ᄃᆡ 可가히 더브러 ᄒᆞᆫ가지로 學학ᄒᆞ고도 可가히 더브러 道도애 가디 몯ᄒᆞ며 可가히 더브러 道도애 가고도 可가히 더브러 立립디 몯ᄒᆞ며 可가히 더브러 立립ᄒᆞ고도 可가히 더브러 權권티 몯ᄒᆞᄂᆞ니라

○唐당棣톄之지華화여 偏편其기反번而이로다 豈긔不블爾이思ᄉᆞㅣ리오마ᄂᆞᆫ 室실是시遠원而이니라

唐당棣톄ㅅ 고지여 偏편히 그 反번ᄒᆞᄂᆞ

또다엇디너를思ᄉᆞ티아니ᄒᆞ리오마ᄂᆞᆫ
室실이이멀옴이니라
子ᄌᆞㅣ曰왈未미之지思ᄉᆞ也야ㅣ언뎡夫부
何하遠원之지有유ㅣ리오
子ᄌᆞㅣ골ᄋᆞ샤ᄃᆡ思ᄉᆞ티아니ᄒᆞ건뎡엇
디머롬이이시리오

鄕향黨당第뎨十십

孔공子ᄌᆞㅣ於어鄕향黨당애恂슌恂슌如
여也야ᄒᆞ샤似ᄉᆞ不블能능言언者쟈ㅣ러시다
孔공子ᄌᆞㅣ鄕향黨당애恂슌恂슌ᄃᆞᆺᄒᆞ

샤能능히言언티몯ᄒᆞᄂᆞᆫ者쟈ᄀᆞᆮ더시다
其기在ᄌᆡ宗종廟묘朝됴廷뎡ᄒᆞ샤ᄂᆞᆫ便변便
변言언ᄒᆞ샤ᄃᆡ唯유謹근爾이러시다
그宗종廟묘와朝됴廷뎡에겨샤ᄂᆞᆫ便변
便변히言언ᄒᆞ샤ᄃᆡ오직삼가더시다
○朝됴애與여下하大대夫부言언애侃간
侃간如여也야ᄒᆞ시며與여上샹大대夫부言
언애誾은誾은如여也야ㅣ러시다
朝됴애下하태우로더브러言언ᄒᆞ심애
侃간侃간ᄃᆞᆺᄒᆞ시며上샹태우로더브러

言언ᄒᆞ심애誾은誾은ᄃᆞᆺᄒᆞ더시다

君군在ᄌᆡ어시든踧축踖척如여也야ᄒᆞ시며與여與여如여也야ㅣ러시다

君군이겨시거시든踧축踖척ᄃᆞᆺᄒᆞ시며與여與여ᄃᆞᆺᄒᆞ더시다

○君군이召쇼使ᄉᆞ擯빈이어시든色식勃블如여也야ᄒᆞ시며足족躩확如여也야ㅣ러시다

君군이블러ᄒᆞ여곰擯빈ᄒᆞ라ᄒᆞ거시든色식이勃블ᄃᆞᆺᄒᆞ시며足족이躩확ᄃᆞᆺᄒᆞ더시다

揖읍所소與여立립ᄒᆞ샤ᄃᆡ 左자右우手슈ㅣ러시니 衣의前젼後후ㅣ 襜쳠如여也야ㅣ러시다

더브러 立립ᄒᆞ신바애 揖읍ᄒᆞ샤ᄃᆡ 손을 左자로ᄒᆞ며 右우로ᄒᆞ더시니 옷앒뒤히 襜쳠ᄃᆞᆺᄒᆞ더시다

趨추進진에 翼익如여也야ㅣ러시다

趨추ᄒᆞ야進진ᄒᆞ심애 翼익ᄃᆞᆺᄒᆞ더시다

賓빈退퇴어든 必필復복命명曰왈賓빈不블顧고矣의라ᄒᆞ더시다

賓빈이退퇴커든반ᄃᆞ시命명을復복ᄒᆞ

야ᄀᆞᆯᄋᆞ샤ᄃᆡ賓빈이顧고ᄒᆞ디아니타ᄒᆞ
더시다
○入입公공門문ᄒᆞ실셔鞠국躬궁如여也야
ᄒᆞ샤如여不블容용이러시다
公공門문의드르실ᄉᆡ躬궁을鞠국ᄃᆞᆺᄒᆞ
샤容용티몯ᄒᆞᆯᄃᆞᆺᄒᆞ더시다
立립不블中즁門문ᄒᆞ며시行힝不블履리閾
역이러시다
立립ᄒᆞ심애門문에中즁티아니ᄒᆞ시며
行힝ᄒᆞ심애閾역을ᄇᆞᆲ디아니ᄒᆞ더시다

過과位위ᄒᆞ실ᄉᆡ色ᄉᆡᆨ勃ᄇᆞᆯ如여也야ᄒᆞ시며是足족躩확如여也야ᄒᆞ시며其기言언이似ᄉᆞ不블足족者쟈ㅣ러시다

位위예디나실ᄉᆡ色ᄉᆡᆨ이勃ᄇᆞᆯᄃᆞᆺᄒᆞ시며足족이躩확ᄃᆞᆺᄒᆞ시며그말ᄉᆞᆷ이足족디몯ᄒᆞᆫ者쟈ᄀᆞᆮ더시다

攝섭齊지升승堂당ᄒᆞ실ᄉᆡ鞠국躬궁如여也야ᄒᆞ시며屛병氣긔ᄒᆞ샤似ᄉᆞ不블息식者쟈ㅣ러시다

齊지ᄅᆞᆯ攝섭ᄒᆞ야堂당의오ᄅᆞ실ᄉᆡ躬궁

을鞠국듯ᄒᆞ시며氣긔를屛병ᄒᆞ샤息식
디몯ᄒᆞᄂᆞᆫ者쟈ᄀᆞᆮ더시다
出츌降강一일等등ᄒᆞ샤ᄂᆞᆫ逞령顔안色ᄉᆡᆨᄒᆞ샤
怡이怡이如여也야ᄒᆞ시며沒몰階계ᄒᆞ샤ᄂᆞᆫ趨
추進진翼익如여也야ᄒᆞ시며復복其기位위
ᄒᆞ샤ᄂᆞᆫ踧츅踖쳑如여也야ㅣ러시다

出츌ᄒᆞ샤一일等등에ᄂᆞ리샤ᄂᆞᆫᄂᆞᆺ비출
逞령ᄒᆞ샤怡이怡이듯ᄒᆞ시며階계를沒
몰ᄒᆞ샤ᄂᆞᆫ趨추ᄒᆞ심애翼익듯ᄒᆞ시며그
位위예復복ᄒᆞ샤ᄂᆞᆫ踧츅踖쳑듯ᄒᆞ더시

다

○執집圭규ᄒᆞ샤ᄃᆡ鞠국躬궁如여也야ᄒᆞ샤如여不블勝승ᄒᆞ시며上샹如여揖읍ᄒᆞ시고下하如여授슈ᄒᆞ시며勃블如여戰젼色ᄉᆡᆨᄒᆞ시며足죡蹜축蹜축如여有유循슌이러시다

圭규를잡ᄋᆞ샤ᄃᆡ躬궁을鞠국ᄃᆞᆺᄒᆞ샤이긔디몯ᄒᆞᆯᄃᆞᆺᄒᆞ시며上샹으로揖읍ᄃᆞᆺᄒᆞ시고下하로授슈ᄃᆞᆺᄒᆞ시며勃블히戰젼ᄒᆞᄂᆞᆫ色ᄉᆡᆨ곧ᄐᆞ시며足죡이蹜축蹜축ᄒᆞ야循슌홈이인ᄂᆞᆫᄃᆞᆺᄒᆞ더시다

享향禮례예 有유容용色색ᄒᆞ시며

享향ᄒᆞᆫ禮례예容용色색이겨시며

私ᄉᆞ覿뎍에 愉유愉유如여也야ㅣ러시다

私ᄉᆞ로覿뎍홈애愉유愉유ᄐᆞᆺᄒᆞ더시다

○君군子ᄌᆞᄂᆞᆫ不블以이紺감緅추로飾식ᄒᆞ시며

君군子ᄌᆞᄂᆞᆫ紺감과緅추로ᄡᅧ飾식디아니ᄒᆞ시며

紅홍紫ᄌᆞ로 不블以이爲위褻셜服복이러시다

紅홍과紫ᄌᆞ로ᄡᅧ褻셜服복도ᄒᆞ디아니

ᄒᆞ더시다

當당暑셔ᄒᆞ샤袗진絺치綌격을必필表표而이出츌之지러시다

暑셔를當당ᄒᆞ샤ᄒᆞᆫ絺치와綌격을반ᄃᆞ시表표ᄒᆞ야내더시다

緇치衣의옌羔고裘구ㅣ오素소衣의옌麑예裘구ㅣ오黃황衣의옌狐호裘구ㅣ러시다

검은오샌羔고裘구ㅣ오흰오샌麑예裘구ㅣ오누른오샌狐호裘구ㅣ러시다

褻셜裘구ᄂᆞᆫ長쟝ᄒᆞ되短단右우袂몌러시다

褻설裘구ᄂᆞᆫ길게ᄒᆞ듸올ᄒᆞᆫ소매를다ᄅᆞ、
게ᄒᆞ더시다
必필有유寢침衣의니ᄒᆞ시長장이一일身신
有유半반이러라
반ᄃᆞ시寢침衣의를두시니기리一일身
신이오ᄯᅩ半반이러라
狐호貉락之지厚후로以이居거시다러
狐호貉락의두터온거스로써居거ᄒᆞ더
시다
去거喪상ᄒᆞ샤ᄂᆞᆫ無무所소不블佩패다러시

喪상을去거ᄒᆞ샤ᄂᆞᆫ大ᄃᆡ아니홀배업더
시다
非비帷유裳샹이어든必필殺쇄之지러시다
帷유裳샹이아니어든반ᄃᆞ시殺쇄ᄒᆞ더
시다
羔고裘구玄현冠관으로不블以이弔됴ㅣ러시다
羔고裘구와玄현冠관으로ᄡᅥ弔됴티아
니ᄒᆞ더시다
吉길月월에必필朝죠服복而이朝죠ㅣ러시다
吉길月월에반ᄃᆞ시朝죠服복ᄒᆞ고朝죠

ᄒᆞ더시다

○齊지必필有유明명衣의러시니布포ㅣ러라

齊져ᄒᆞ실제반ᄃᆞ시明명衣의를닙더시니布포ㅣ러라

齊져必필變변食식ᄒᆞ시며居거必필遷쳔坐좌ㅣ러시다

齊져ᄒᆞ실제반ᄃᆞ시食식을變변ᄒᆞ시며

居거홈을반ᄃᆞ시坐좌를遷쳔ᄒᆞ더시다

○食ᄉᆞ不블厭염精졍ᄒᆞ시며膾회不블厭염細세러시다

食ᄉᆞᄂᆞᆫ精정홈을厭염티아니ᄒᆞ시며膾
회ᄂᆞᆫ細셰홈을厭염티아니ᄒᆞ더시다
食ᄉᆞ饐에而이餲애와魚어餒뇌而이肉육
敗패를不블食식ᄒᆞ시며色식惡악不블食식
ᄒᆞ시며臭취惡악不블食식ᄒᆞ시며失실飪임不
블食식ᄒᆞ시며不블時시不블食식이러시다
食ᄉᆞㅣ饐에ᄒᆞ야餲애ᄒᆞ니와魚어ㅣ餒
뇌ᄒᆞ며肉육이敗패ᄒᆞ니를食식디아니
ᄒᆞ시며色식이惡악ᄒᆞ니를食식디아니
ᄒᆞ시며臭취ㅣ惡악ᄒᆞ니를食식디아니

ᄒᆞ시며飪임을失실ᄒᆞ엿거든食식디아
니ᄒᆞ시며時시ㅣ아니어든食식디아니
터시다
割할不블正졍이어든不블食식ᄒᆞ시며不블得
득其기醬쟝이어든不블食식이러시다
割할ᄒᆞ요거시正졍티아니커든食식디아
니ᄒᆞ시며그醬장을得득디몯ᄒᆞ야든食
식디아니터시다
肉육雖슈多다ㅣ나不블使ᄉᆞ勝승食ᄉᆞ氣긔
ᄒᆞ시며唯유酒쥬無무量량ᄒᆞ샤되不블及급亂

란이러시다
肉육이비록하나ᄒᆞ여곰食ᄉᆞ氣긔를勝
승케아니ᄒᆞ시며오직酒쥬ᄂᆞᆫ量량업시
ᄒᆞ샤ᄃᆡ亂란에밋게아니터시다
沽고酒쥬市시脯포를不블食식ᄒᆞ시며
沽고ᄒᆞᆫ酒쥬와市시ᄒᆞᆫ脯포를食식디아
니ᄒᆞ시며
不블撤철薑강食식ᄒᆞ시며
薑강食식홈을撤철티아니ᄒᆞ시며
不블多다食식이러시다

해食식디아니터시다

祭제於어公공에不블宿슉肉육ᄒᆞ시며祭제肉육은不블出츌三삼日일ᄒᆞ더시니出츌三삼日일이면不블食식之지矣의니라

公공애祭제ᄒᆞ심애肉육을宿슉디아니ᄒᆞ시며祭제肉육은三삼日일에出츌티아니ᄒᆞ더시니三삼日일에出츌ᄒᆞ면食식디몯ᄒᆞᆯ꺼시니라

食식不블語어ᄒᆞ시며寢침不블言언이러시다

食식ᄒᆞ심애語어티아니ᄒᆞ시며寢침ᄒᆞ

심애言언티아니터시다

雖슈蔬소食ᄉᆞ菜ᄎᆡ羹깅이라도瓜필祭졔ᄒᆞ샤ᄃᆡ必필齊졔如여也야ㅣ러시다

비록蔬소食ᄉᆞ와菜ᄎᆡ羹깅이라도반ᄃᆞ시祭졔ᄒᆞ샤ᄃᆡ반ᄃᆞ시齊졔ᄐᆞᆺᄒᆞ더시다

○席셕不블正졍이어든不블坐좌ㅣ러시다

席셕이正졍티아니커든坐좌티아니터시다

○鄕향人인飮음酒쥬에杖쟝者쟈ㅣ出츌이어든斯ᄉᆞ出츌矣의러시다

鄕향人인이酒쥬를飮음홈애杖쟝ᄒᆞᆫ者
쟈ㅣ出츌ᄒᆞ거든이예出츌ᄒᆞ더시다
鄕향人인儺나애朝죠服복而이立립於어
阼조階계다러시
鄕향人인이儺나홈애朝죠服복ᄒᆞ시고
阼조階계예立립ᄒᆞ더시다
○問문人인於어他타邦방ᄒᆞ실시再저拜빈
而이送송之지다러시
사ᄅᆞᆷ을다ᄅᆞᆫ나라히무ᄅᆞ실시再저拜
ᄒᆞ야보내더시다

康강子ᄌᆞㅣ饋궤藥약이어ᄂᆞᆯ拜비而이受슈
之지曰왈丘구ㅣ未미達달이라不블敢감嘗
샹이라ᄒᆞ시다
康강子ᄌᆞㅣ藥약을饋궤ᄒᆞ야ᄂᆞᆯ拜비ᄒᆞ
고受슈ᄒᆞ샤ᄀᆞᆯᄋᆞ샤ᄃᆡ丘구ㅣ達달티몯
ᄒᆞᆫ디라敢감히嘗샹티몯ᄒᆞ노라ᄒᆞ시다
○廐구焚분이어ᄂᆞᆯ子ᄌᆞㅣ退퇴朝죠曰왈傷
샹人인乎호아ᄒᆞ시고不블問문馬마ᄒᆞ시다
廐구ㅣ焚분커ᄂᆞᆯ子ᄌᆞㅣ朝죠로退퇴ᄒᆞ
샤ᄀᆞᆯᄋᆞ샤ᄃᆡ人인이傷샹ᄒᆞ냐ᄒᆞ시고馬

마를묻디아니ᄒᆞ시다

○君군이賜ᄉᆞ食식이어시든必필正졍席셕先선嘗샹之지ᄒᆞ시고君군이賜ᄉᆞ腥셩이어시든必필熟슉而이薦쳔之지ᄒᆞ시고君군이賜ᄉᆞ生셩이어시든必필畜휵之지러시다

君군이食식을賜ᄉᆞᄒᆞ야시든반ᄃᆞ시席셕을正졍히ᄒᆞ고몬져嘗샹ᄒᆞ시고君군이腥셩을賜ᄉᆞᄒᆞ야시든반ᄃᆞ시熟슉ᄒᆞ야薦쳔ᄒᆞ시고君군이生셩을賜ᄉᆞᄒᆞ야시든반ᄃᆞ시畜휵ᄒᆞ더시다

侍시食식於어君군에君군祭제어시든先션飯반이러시다

君군ᄭᅴ뫼셔食식ᄒᆞ실제君군이祭제ᄒᆞ시거든몬져飯반ᄒᆞ더시다

○疾질에君군이視시之지어시든東동首슈ᄒᆞ시고加가朝죠服복拖타紳신이러시다

疾질에君군이視시ᄒᆞ거시든東동으로首슈ᄒᆞ시고朝죠服복을加가ᄒᆞ시고紳신을拖타ᄒᆞ더시다

君군이命명召쇼ㅣ어시든不불俟ᄉᆞ駕가行힝

矣의러시다

君군이命명ᄒ야召쇼ᄒ거시든駕가를俟ᄉ티아니ᄒ시고行힝ᄒ더시다

○入입太태廟묘ᄒ샤每ᄆᆡ事ᄉ를問문이러시다

○朋븅友우ㅣ死ᄉ ᄒ야無무所소歸귀어든曰왈於어我아殯빈이라ᄒ더시다

朋븅友우ㅣ死ᄉ ᄒ야歸귀홀ᄲᅢ업거든골ᄋᆞ샤ᄃᆡ내게殯빈ᄒ라ᄒ더시다

朋븅友우之지饋궤ᄂᆞᆫ雖슈車거馬마ㅣ라도非비祭제肉육ㅣ어든不블拜비러시다

朋븡友우의饋궤ᄂᆞᆫ비록車거馬마ㅣ라

도祭제肉육아아니어든拜빈티아니ᄒᆞ

더시다

○寢침不블尸시ᄒᆞ며居거不블容용이러시다

寢침홈애尸시티아니ᄒᆞ시며居거홈애

容용티아니터시다

見견齊지衰최者쟈ᄒᆞ시고狎압이나必필

變변ᄒᆞ시며見견冕면者쟈與여瞽고者쟈ᄒᆞ시

고雖슈褻설이나必필以이貌모ㅣ러시다

齊지衰최ᄒᆞᆫ者쟈를보시고비록狎압ᄒᆞ、

나반ᄃᆞ시變변ᄒᆞ시며冕면ᄒᆞᆫ者쟈와다
믓瞽고ᄒᆞᆫ者쟈를보시고비록褻설ᄒᆞ나
반ᄃᆞ시ᄡᅥ貌모ᄒᆞ더시다
凶흉服복者쟈를式식之지ᄒᆞ시며式식負부
版판者쟈ㅣ러시다
凶흉服복ᄒᆞᆫ者쟈를式식ᄒᆞ시며版판負
부ᄒᆞᆫ者쟈를式식ᄒᆞ더시다
有유盛셩饌찬이어든必필變변色식而이作
작이러시다
盛셩ᄒᆞᆫ饌찬이잇거든반ᄃᆞ시色식을變

변ᄒᆞ시고作작ᄒᆞ더시다

迅신雷뢰風풍烈렬에必필變변이러시다

迅신ᄒᆞᆫ雷뢰와風풍이烈렬홈애반ᄃᆞ시變변ᄒᆞ더시다

○升승車거ᄒᆞ샤必필正정立립執집綏유ㅣ러시다

車거의升승ᄒᆞ샤반ᄃᆞ시正정히立립ᄒᆞ샤綏유를執집ᄒᆞ더시다

車거中즁애不블內ᄂᆡ顧고ᄒᆞ시며不블疾질言언ᄒᆞ시며不블親친指지러시다

車거中즁애內닉顧고티아니ᄒᆞ시며疾질히言언티아니ᄒᆞ시며親친히指지티아니터시다

○色석斯ᄉᆞ擧거矣의야ᄒᆞ翔샹而이後후集집이니라

色식ᄒᆞ고이예擧거ᄒᆞ야翔샹ᄒᆞᆫ後후에集집ᄒᆞᄂᆞ니라

曰왈山산梁량雌ᄌᆞ雉치ㅣ時시哉ᄌᆡ時시哉ᄌᆡᆫ뎌子ᄌᆞ路로ㅣ共공之지ᄒᆞᆫ대三삼嗅후而이作작ᄒᆞ시다

ᄀᆞᆯᄋᆞ샤ᄃᆡ 山산梁량 엣 雌ᄌᆞ雉치ㅣ 時시ㄴ뎌 時시ㄴ뎌 子ᄌᆞ路로ㅣ 共공ᄒᆞᆫ대 세번 嗅후ᄒᆞ시고 作작ᄒᆞ시다

論론語어諺언解ᄒᆡ卷권之지二이

ᄀᆞᆯᄋᆞ샤ᄃᆡ山산梁량엣雌ᄌᆞ雉치ㅣ時시ㄴ뎌時시ㄴ뎌子ᄌᆞ路로ㅣ共공ᄒᆞᆫ대세번嗅후ᄒᆞ시고作작ᄒᆞ시다